

3-15-2015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Myon Soo Lee 이면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면수,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REVITALIZATION OF EVANGELISM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EUMGOK COMMUNITY CHURCH

written by

MYON SO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il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March 15, 2015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REVITALIZATION OF EVANGELISM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EUMGOK COMMUNITY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YON SOO LEE

MARCH 2015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이 면 수

2015년 3월

Abstract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Revitalization of Evangelism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eumGok Community Church

Myon Soo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best ministry that the Korean church can do for the world is the ministry of evangelism.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strategy for evangelism in order to eventually make a local church become a healthier Christian community.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discusses evangelism biblically and practically. After surveying the definition and purposes of evangelism—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church growth, and the salvation of souls—this chapter insists on not investigating theories about evangelism but actual actions. It then studies those who need to be evangelized, such as atheists, people who left the church, heretics, people of other religions, and others.

Chapter 3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talization of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The chapter first establishes an ecclesiology centered on evangelism and then scrutinizes various evangelism methods Korean churches have used such as the Four Spiritual Laws, Relational Evangelism, Drizzle-Letter Evangelism, Evangelism Explosion, and Mass-Evangelism. It then reconsiders the benefits and effectiveness of the Evangelism Explosion and Mass-Evangelism for the Korean church. Next the chapter examines a few churches that provide good examples of great evangelism ministries based on the Evangelism Explosion and Mass-Evangelism.

Chapter 4 describes the area where the Geumgok Community Church is located demographically, culturally, economically, and religiously, and then examines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issues of the church. Chapter 5 scrutinizes the Geumgok Community Church's ministry of evangelism, which consists of two different but related programs: the Evangelism Explosion and the New Life Festival, a type of the Mass-Evangelism. This chapter then analyzes how these programs have helped the Geumgok Community Church become a healthier Christian community that provides spiritual benefits to the communities around it.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일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만남부터 자상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셨기에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추천해 주셔서 논문연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곡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금곡교회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정리하고 연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회의 장로님들의 배려와 기도애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자료를 내 일처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신신호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역자 박충성목사님, 김기민목사님의 자료수집에 가까이 기쁨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플러신학교의 김태석 부원장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우심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전화주시고 격려와 독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어린 관심을 보내주셔서 논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노정에 그리고 이하영, 이주찬, 이성은의 특별한 관심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기에 용기를 내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이면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3
제 2 장 전도에 대한 이해	4
제 1 절 전도의 신학적 이해	4
1. 전도의 정의	4
2. 전도의 목적	7
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	7
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9
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10
제 2 절 전도의 실천적 이해	11
1. 전도의 이론과 실천	11
2. 이론과 현실의 차이	12
3. 교회 성장형 전도와 선교적 교회의 전도	13
제 3 절 전도의 대상	15
1. 무신론자	15
2. 교회를 떠난 사람	16
3. 이단에 빠진 사람	18
4. 타 종교인	19
5. 가족	20
제 3 장 전도사역 활성화와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상관성	23
제 1 절 전도중심의 교회론	23
1. 교회의 본질	24

2. 교회의 사명	25
3. 교회성장과 전도	26
제 2 절 한국교회에 사용되는 전도법	26
1. 전도폭발훈련	27
가. 시론	29
나. 복음	29
다. 결신	30
라. 즉석양육	30
2. 총동원전도	30
3. 사영리전도	32
4. 기타전도방법	34
제 3 절 전도를 통한 지역교회의 성장에 대한 사례연구	36
1.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	36
가.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의 역사	37
나.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의 내용	37
다.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평가	40
2.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	40
3. 신일교회의 새생명축제	40
제 4 절 한국교회에 전도 패러다임 제언	46
1. 전도의 문을 막는 요인	46
2. 전도 패러다임 제언	48
제 4 장 금곡교회 복회환경 분석	51
제 1 절 금곡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51
1. 금곡교회의 역사	51
2. 금곡교회의 지역적 특성	52
제 2 절 금곡교회의 복회환경	54
1.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54

2. 봉사과 섬김의 교회	55
3. 고령화된 교회	57
제 3 절 금곡교회에서 전도사역의 필요성	59
1.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	59
가. 전도폭발훈련이란	59
나. 새생명축제란	62
다. 전도사역에 대한 비판적 진단	65
2. 금곡교회에서의 전도사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68
제 5 장 금곡교회의 전도사역 실제	71
제 1 절 금곡교회의 전도폭발훈련	71
1. 초기 정착과정	71
2. 금곡교회의 전도폭발훈련 내용	72
3.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의 통계분석 및 평가	75
제 2 절 금곡교회 새생명축제	80
1.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역사	80
2.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실제	80
3.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당일집회와 결신	88
4.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사후관리	92
5.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의 통계분석 및 평가	93
제 3 절 전도사역의 활성화가 금곡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미친 영향	95
1. 교회의 이미지 변화	95
2. 교회의 양적 질적인 성장	95
3. 전도에 대한 열망과 도전	96
제 6 장 결론	99
참고문헌	104

Vita 108

표 목 차

<표 1> 남양주시 각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2014.12.31.현재)	53
<표 2>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생 수	76
<표 3>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 복음제시와 결신자 수	76
<표 4> 금곡교회 새생명축재 통계	9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교회의 위기를 목회 현장에 서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절감하고 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는 위기상황에 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성장둔화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교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매스컴에서 교회의 위기상황을 단골주제로 다루고 있다. 일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제습화, 목회자의 일탈과 부정, 재정사용의 불투명, 천문학적인 교회건축비 등을 거침없이 다루어 대외적으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와 목회자의 변질과 함께 성도의 삶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교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출발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또한 교회의 성장과 확신은 복음에 감동한 사람들의 열정의 결과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교회의 생명력이며, 갱신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과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자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통해서 지상에 세워진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전도학 교수인 김선일은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다.”¹⁾라

1)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세세대, 2012), 6.

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많은 전도 프로그램은 복음의 본질적인 면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기보다는 현재에서의 물질적인 행복과 자아실현을 약속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과 변화된 성품 보다 단기간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인위적 기법과 재능에 전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교회의 전도의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선일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전도자 자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변화되고 반응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함께 교회도 세상과 같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승부 걸어야 한다. 복음은 전도자의 소명을 가진 성도로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변화시켜야 할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한다.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금곡교회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되고 신앙적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록한 꿈을 꾸며, 목회전략을 세우고 있다.

금곡교회는 1947년에 설립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표어 하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구성원의 평균연령이 50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왕성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이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전략과 교회회복의 출발점으로 전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교회로서의 역동성을 찾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소수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폭발훈련으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교회의 변화라는 모토아래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회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복음에 대한 대각성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일상의 삶에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감당하는 '삶이 변하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금곡교회는 2011년부터 새로운 목회전략인 전도 프로그램인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 및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에 역점을 둔 교회 역동성을 회복시킬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전도와 활성화에 대해서 관련된 문헌들을 주된 자료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금곡교회 목회철학과 목회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다.

남양주 금곡동이라는 도농지역의 특수성과 교회 구성원의 분포 등의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지만 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도전과 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교회의 역동성이 전도에 있음을 논하고 그 배경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전도의 신학적, 실천적인 이해를 서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전도사역 활성화와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상관성을 교회론적 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사용되는 전도법과 전도를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실례를 들고 있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금곡교회의 목회배경인 교회의 역사와 목회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5장에서는 금곡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전도폭발훈련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통계를 통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의 현황과 통계를 서술하고, 금곡교회에서 전도사역의 활성화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6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금곡교회와 한국교회의 전도 사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본 논문을 맺는다.

제 2 장

전도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전도의 신학적 이해를 통하여 전도의 정의 및 전도의 목적을 살펴보고, 전도의 실천적 이해를 구할 것이다. 전도의 이론과 실천, 이론과 현실의 차이 및 교회 성장형 전도와 선교적 교회의 전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전도의 신학적 이해

전도는 성경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에 성경적 개념이 재해석되어 적용되어진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도의 정의와 목적을 성경적·신학적으로 정의하고 하나님나라의 구현으로서의 교회의 성장과 영혼 구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도의 정의

전도를 정의하면서 전도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에 대한 접근 방법은 신학적 접근법, 성경적 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설교학적 접근법, 실제적 접근법, 사회학적 접근법 등 다양하다.²⁾ 여러 접근법 중에 복음을 신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데이비드 J.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에 의하면 첫째, 성경의 내용이 복

2) 우창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복음전도* (서울: 도서출판 자은, 2007), 214.

음과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이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건전한 신학적 기초가 없는 전도라면 감상주의 혹은 감정주의 눈속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³⁾ 그래서 신학을 떠나서는 효과적인 전도란 있을 수 없고 전도를 떠나서 신학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얼마 안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와 신학은 상호보완적이며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복음전파 즉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라는 뜻이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서 ‘*κηρύγμα*’, ‘*κηρύσσειν*’ 등으로 사용된다.

영어의 “전도”(Evangelism)라는 단어는 17세기에 와서 생겨나게 되었는데,⁴⁾ 라틴어의 “전도”(Evangnglism)에서 유래되었다. 라틴어의 전도(Evangnglism)는 다시 그리스어의 *εὐαγγελίζω*의 명사형인 *εὐαγγελίου*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⁵⁾

복음이란 인간구원에 관한 설명이나 학설을 넘어신 것으로 인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담론에만 얽매이는 것은 무용하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본질이다.⁶⁾

로저 바삼(Rodger C. Bassham)은 “전도란 성경대로 저주로 멸망한 죄인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을 전파하는 것이며 모든 생활에서 그의 교회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며 영광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⁷⁾라고 말한다. 프로이드 맥엘븐(Floyd C. McElveen)은 전도에 관해서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는 기쁨, 방황하는 인생이 변화되어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기쁨,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는 기쁨, 그리스도의 능력과 긍휼을 직접전달해 주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3) David J. Hesselgrave, ed., *Theology an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189-194.

4) 조은태, *전도학총론* (서울: 타문화권 목회 연구원, 1995), 30.

5) 김형진,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3), 43-44.

6) 조종남, *선교와 사회참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106-108.

7) Rodg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1980), 222.

그 끔찍스러운 불 못에서 소중한 영혼들을 건져낸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⁸⁾라고 주장한다.

또한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전도를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할 죄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영광 중에 예수가 나타날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⁹⁾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복음전파 즉 전도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복케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써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당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기쁜 소식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전파하여 사람들로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섬기게 하므로 영생을 인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신학적으로 전도를 정의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복음 제시로서 만의 역할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성도들의 정착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음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전도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사명을 성취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¹⁰⁾라고 말한다.

신교학자인 루이스 드루몬드(Lewis A. Drummond)는 “전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그의 주장을 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의 집합이다”¹¹⁾

8) Floyd C. McElveen, *The Compelling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891), 77.

9) John R. W. Stott, “The biblical Basic of Evangelism,”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66.

10) James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5), 38.

라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그의 책 *초대교회 복음전도*에서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선포한다, 증거한다는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치 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¹²⁾라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 대화에서 존 스토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했다.¹³⁾

2. 전도의 목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복음전도에 전심을 기울여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R. B. 카이퍼(R. B. Kuiper)는 복음전도의 목적을 영혼구원,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림에 있다고 했다.¹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다. 천국이나 지옥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천하인간에 구원받을만한 이름으로 유일하게 주어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행 4:12). 그러기에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임무이다. 죄 값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백성으로 삼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최대의 목적이다.

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인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11) Lewis, A. Drummond, *현대전도학서설*, 변은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30.

12)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4), 16-17.

13) David Watson,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32.

14) Ibid., 32.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유일하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경우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된다.¹⁵⁾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지상명령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한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이 지상명령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 이 명령은 복음서 전체와 사도행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는 구원은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수께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체적인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서의 구원이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불의에서의 구원이며, 현세적인 평화인 동시에 영원한 구원이다.¹⁶⁾ 하나님 나라 사상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일관된 하나의 사상이다.¹⁷⁾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나라는 개인을 통하여 제자의 수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간다. 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되는 것을 확증해 준다. 그리스도는 그 나라로 사람들을 부르셨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원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2,3)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고 하시며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셨다. 즉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의 수가 증가되기를 원하며 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로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신다.¹⁸⁾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전도의 내용은 하나님나라였다. 예수님의 중심메시지가 하

15) R. B. Kuiper, *전도신학*,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107.

16) 이규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전망사, 1990), 13.

17)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김철순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3), 17.

18) 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33.

나님의 나라였다는 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¹⁹⁾ 그분의 첫 번째 설교(막 1:15)도 마지막 설교(행 1:3)도 ‘하나님나라’에 관한 것이었다.²⁰⁾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100회 이상 언급되어 있다.²¹⁾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선포하셨고, 이것을 가르치셨고, 이것을 위해 사역하셨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메시지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²²⁾

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A. R. 티팻(A. R. Tippett)은 그의 책,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성장은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강화되고 질적으로 자라가는 기간 중에 교회성장이 정지되었다.”²³⁾라고 주장한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숫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르너는 “불이 타므로 그 존재를 나타내듯 교회는 전도를 함으로 그 교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²⁴⁾라고 하였다.

교회의 성장과 전도는 너무나도 큰 관계를 갖고 있다. 교회 성장이라 함은 첫째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성장의 예는 하루에 3천 명씩이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을 위시한 온 교회가 전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질적 성장인데 성도들의 신앙지식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성장은 성도들 하나하나의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 소수가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해도 전도할 줄 모르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라고 볼 수 없고 훌륭한 성도는 전도하기 마련이니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로 전도에 모범적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므로 교회의 성장을 보여 주었다.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 외에

19)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60.

20) 신성중,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신학지남*, 1980년 가을·겨울호, 32.

21) Ibid. 33.

22) 문상희, “예수의 생애와 선교”, *오늘의 성서연구와 복음선포 제7집*,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자료원, 1987, 31.

23) A. R. Tippett,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장중열 역 (서울: 보이서사, 1980), 46.

24) 장중열, *교회성장과 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8), 188. 제인용.

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카이퍼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성장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머리되 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데 있다”²⁵⁾고 말하였다.

잠언서 14장 28절에서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니라”고 했다.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이 못된다.

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권능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받으리라 (막 16:16) 무엇보다도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은 멸망 받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구원을 믿음으로”(벧전 1:9) 말하고 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없으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고 했다. 이 유일의 길이 전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일어나는 것이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라고 바울이 역설했다.

조지 스위지(George E. Sweazey)는 “전도의 초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²⁶⁾라고 하고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양식, 교육, 그리고 삶을 배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회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인간의 영광스러운 변화이며 그것은 지속적인 기쁨이며 기독교의 경이로서 회심은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 회심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며 새로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완전한 전환이라고 하였다.²⁷⁾

25) R. B. Kuiper. *교회란 무엇인가*, 박수준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3), 113.

26) George E. Sweazey, *교회전도학*, 친병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84.

27) Ibid., 140.

제 2 절 전도의 실천적 이해

요즘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전도의 과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전도가 어렵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지만, 여전히 신실한 수많은 전도의 수고와 열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재 한국 교회의 교세흐름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분위기를 생각할 때 전도에 대한 밝지 않은 전망이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교회와 복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익숙했던 관습적 전도에 대한 이해와 방법으로는 교회의 전도에 대한 갱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문제 제기는 신학적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학이 전도와 무관할 것이라는 혹은 신학이 전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해가 있다. 본 절에서는 그 오해를 살펴보고 전도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1. 전도의 이론과 실천

존 스토틀은 전도에 있어서 자극적인 동기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전도란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도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²⁸⁾ 그러나 전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도의 실천은 신학적 이론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도는 실천이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실천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실천은 이론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선일은 실천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는 모든 실천에는 이론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은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론이 실천에서 나오고, 실천은 다시 그 이론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전도 모델들은 이미 특정한 신학적 이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복음의 내

28) John R. W. Stott,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81), 14.

용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그렇다.”²⁹⁾

예를 들어,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는 대중적인 전도 사역의 연결 질문을 보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은혜라는 신학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신학적 논의와 함께 모든 전도 케이스는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노방전도나 집회전도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결신 요청’은 상대의 복음에 대한 선 이해나 그간의 영적 여정 등에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복음 제시에 일률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통적 전도모델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인 경우들이다. 상호존중의 대화 속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자신의 편으로 상대를 끌어오려는 성공 지향적 전략은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이론과 현실의 차이

교회성장이라는 면에서 전도를 생각할 때에 전도에 대한 현실은 자기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전도가 많다.³⁰⁾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개 교회주의와 교회성장 지상주의, 특히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로써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한다.³¹⁾

이론과 현실에는 간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간격은 현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지, 새로운 이론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시할 사안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현실적 실천들은 부지불식간에 신학적 이론을 내포하고 있다. 신학자와 전도자를 분리시키는 시각 또한 진지하게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자에게 상호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적 이론화를 등한시하고, 전도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게을리 할 수 있다.

29)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47.

30) 박혜경, *되는 전도 하는 전도* (안양: 도서출판 잠인, 1995), 15.

31) 양낙홍,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신학교육의 개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7.

그래서 김선일은 이제는 전도에도 '통섭', '융합'과 같은 키워드가 필요한 것을 필력하며 “가장 치열한 실천의 현장인 전도 사역을 향한 신학의 총체적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학자와 전도자가 서로 만나 신학이 사변화되지 않도록, 전도가 방법론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대화해야 한다.”³²⁾고 전도에 통섭과 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은 단순히 교회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을 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신속한 대량생산 체제의 전도 사역으로는 세속 사회에서 형성되는 성품 가치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를 양산하기 때문이 아닐까?

전도는 현대 문화의 풍조를 대안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실천적 삶을 제공하는 사역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오늘날 전도의 위기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나 홍보와 같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에 대한 신학적, 비판적 사고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신학과 전도의 불가분한 관계를 옹호한다.³³⁾ 제임스 패커는 “신학이 전도와 분리되면 신학은 추상적·사변적이 되며 전도의 방법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3. 교회 성장형 전도와 선교적 교회의 전도

그러면 전도의 위기와 새로운 요청을 안고 있는 이 시기에 신학은 전도의 노정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는 과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독교 국가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교회 성장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다분히 서구 기독교의 역사적 정황에서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최근 교세의 쇠퇴에 직면한 한국 교회도 동병상련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국가 시대에 교회는 한 지역의 중앙을 차지하면서 사회 제 분야에 표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모든 사람들과 사회 기능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했다. 세속화가 한창 진행된 20세기 서구 교회가 여전히 이러한 교회 중심적 프레임에서 전도를 하려 했던 방법이 교회 성장학을 이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구도자 에베'와 '대중 전도'였다. 교회 성장적 모

32)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49.

33) Ibid., 51.

텔에서의 전도는 기독교 국가 시대의 향수를 간직한 듯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을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제시한다. 간결하게 정리된 핵심 교리들을 열거해주고 그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내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전도 사역이 실행된다. 교회 성장적 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케팅 방식과 세일즈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마치 상품을 판매하듯이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적·정서적 설득 방법들이 동원되고, 실적에 대한 피드백과 통계가 수집된다. 사람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이고 유익한 메시지가 교회와 설교를 대변해준다.³⁴⁾

반면 선교적 교회론은 가시적인 기독교 체계의 확장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복과 삶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양육하고 지원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특정한 신앙 공동체가 특정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영적 여정을 함께 하도록 격려한다.

전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도록 영적 여정을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전도 사역은 길거리나 집회에서의 일회성 결신에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도 모델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거나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결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전인적 변화에 들어서며 새로운 공동체에 헌신하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을 목표로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전도신학은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입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응답하는 것을 예수 믿음의 가장 뚜렷한 표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와 같은 시대의 필요와 신학의 처방은 이미 공명을 이루고 있다. 신학은 전도의 새로운 과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제는 전도가 응답할 차례다.

34)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52-53.

제 3 절 전도의 대상

본 절에서는 교회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무신론자, 교회를 떠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타 종교인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는 뭐고 지옥은 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다 차라리 과학을 믿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등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전도 현장에서 갖는 현실이다.³⁵⁾

무신론자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은 10퍼센트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무종교인을 포함해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의 존재는 막연히 인정하지만 굳이 그 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유신론에 대한 반발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 기독교에 몸담은 경험으로 각기 다양한 상처들을 가진 이들도 있다. 대체로 기독교의 배타성에 분노하고 기독교인의 편협성, 부도덕성과 위선에 혐오감을 가진다. 미신적이고 반지성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를 폐로는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구세력과 동일시하며 성토했기도 한다.

변증전도연구소장 안환균은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일반적인 전도 방법보다는 변증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성인 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갖는 데 방해되는 지적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변증 전도가 요긴하다. 성도들에게도 변증 전도는 반기독교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확신시켜 그들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준다”³⁶⁾고 무신론자 전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교회사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

35) 안산동산교회전도팀, “기독교신앙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89-90.

36) 안환균, “무신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70.

력과 기만과 악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졌다고 넘겨짚는다. 그러나 교회에는 항상 가짜 기독교인들이 있어왔고 인류사에서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교회였다. 지금도 기독교 문화화된 것에 만족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의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위선 때문에 교회가 안팎으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참된 회심과 거듭남에 대한 강조가 약해져서다. 무신론자 전도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이다. 지금은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 안에 있다가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에 휩쓸려 인제라도 교회를 이탈할 수 있는 청소년, 청장년 대상의 전도도 시급하다. 잠재적 무신론자인 이들에게도 기독교는 취향 따라 버릴 수도 있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역사임을 분명히 전해줘야 한다. 무신론자에게 전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전도지이며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이정표인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전도자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³⁷⁾ 전도인은 전도대상자인 무신론자에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풀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회를 떠난 사람(가나안성도)

교회를 이전에 다녔으나 현재 낙심한 사람들은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의 행실에 실망한 경우나 교회 안의 위선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³⁸⁾ 교회를 떠난 사람, 가나안성도라고도 한다.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 물어보면 많은 사람의 대답이 “관심 없어요”,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거나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이다. 전도현장에서 만나는 전도 대상자의 절반정도가 교회에 한 번쯤 다녔던 사람들이다. 교회에 대해 잘 알거나 성경 지식, 교리에 대해 훤히 아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37) 이왕복, *생활전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103.

38) 안산동산교회전도팀, “이전에 교회를 다녔으나 현재 낙심한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92.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 이상화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대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처받은 자와 논쟁하지 말라'와 그리고 '그들을 품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라'는 것이다.³⁹⁾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아 떠난 사람들은 진도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할 때마다 일일이 논쟁하며 실복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그들을 감싸 안아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대화를 시작했다면 절대로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대변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부분을 당신이 바로 보며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려는 주님의 뜻 아니겠느냐”고 적극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을 품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이제는 그들을 품을 만한 그릇의 용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친밀하게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다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서너 명, 대여섯 명으로 친밀감 관계를 확대해가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해 가는 거다. 여기서 건강한 소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관계 지향적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고, 감정적인 친밀감을 가장 빠르게 성숙시키고, 자신의 문제는 물론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관계 공동체인 것이다. 결국 교회에 실망을 느낀 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 정착시키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데는 영적 공동체의 건강한 소그룹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39) 이상화, “교회를 떠난 사람, 어떻게 진도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72.

3. 이단에 빠진 사람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다. 이 이단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항상 기독교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진도해야 할까? 이단들의 세뇌보다 더 힘든 것이 이단에 빠졌다가 회복과정이다. 이단 피해자들이 회복을 생각하며 교회를 찾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의 문턱은 너무 높기에 피해자들은 다시 또 다른 이단을 찾게 된다고 한다. 교회의 무관심이 이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신자들을 위한 이단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이단 이탈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부산장신대 교수인 탁지일은 이단에 대한 교회의 생각 중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이단 신도들이 이단 문제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이단 관련자의 정죄'가 아니라 '이단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단 대처를 한다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타게 찾으시는 길 잃은 어린양들임을 교회가 인식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⁴⁰⁾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떨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초대교회에 이단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신앙인들은 항상 이단들의 주된 포섭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이단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 중 하나가 아예 집에 들어지도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집에 들어지도 말고”라는 말씀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냉소적인 무관심으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이고 따뜻한 관심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단에 속하거나 이단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교회로 적극적으로 이끌 때 이들은 성령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단에 속한 자를 사랑해야만 한다. 영적대결로 보게되면 논쟁과 불편한 관계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이 요청된다.⁴¹⁾

40) 탁지일, “이단에 빠진 사람, 어떻게 진도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74.

41) 전호진, “이단의 특징과 이단진도전략”, *고려신학논문집 제18호*, 1990년 12월호, 132.

왜 그들이 이단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단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위탁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4. 타 종교인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인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아닙니까?’으로 부모와 조상에게 불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⁴²⁾ 또한 한국사회에 비기독교인이 70퍼센트인데, 그 중에 불교인구가 25퍼센트가 된다고 한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불신자의 1/3이상은 불교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타종교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사회이다. 타종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큰 확신이 필요하다. 신학적 차원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신학적 배타성과 사회적 배타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타종교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인 안점식은 몇 가지의 이해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 타 종교인들이 모두 그들 종교의 정통 교리나 실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교들은 공식 종교의 차원과 민간 종교의 차원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타 종교인들은 민간 종교 차원의 신앙을 갖고 있기에 명목 신자들도 많다. 이들에게는 복음 자체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⁴⁾라고 재언하고 있다.

그리고 타 종교인을 상대로 변증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온유와 존중함

42) 안산동산교회진도팀, “불교나 유교 등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91.

43) 임현준, “불교신자진도, 아는만큼 전도할 수 있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62.

44) 안점식, “타 종교인,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76.

이라고 한다. 타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무조건 종교를 배도하거나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복회자들은 설교 강단에서 타 종교에 대한 구분별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타 종교인들은 우리의 논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더 많이 보고 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무례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며, 전도의 담대함과 무례함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타 종교의 창시자와 타 종교의 교리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도를 논쟁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정싸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얻는 것이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종교다원 사회에서의 전도는 어떤 면에서 영성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영성이 타 종교인의 영성보다 탁월하지 않다면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족 중에 타 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삶의 분재, 영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차원의 전도가 선행될 때 말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더욱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임헌준은 타종교인 불교신자 대상으로 전도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전도대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라. 이는 이성적인 설득보다 인간적인 관계와 친밀감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아주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불교에 대한 공격은 과거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도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한다. 당장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다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⁴⁵⁾

5. 가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관계에서는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쉽게 열매를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⁴⁶⁾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가족 전도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보면 의외로 다른 사

45) 임헌준, “불교신자전도, 아는만큼 전도할 수 있다”, 65-67.

46) 정은숙, “가족전도, 사랑으로 인내하라”,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27-28.

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 가족 전도가 다른 전도보다 어려울까? 가족의 영적상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미리 낙인을 찍어버린다.

불신가족은 대부분 주일에 집에서 쉬거나 여행, 스포츠, 영화 등을 즐긴다. 이는 생활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의 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권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버리곤 한다. 또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성향과 기질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다. 하지만 가족 전도는 절대 어렵지 않다. 방법을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가족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랑과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과 본보기로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가족 전도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서두르면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다. 우선 예수님의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과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술이나 제사 등의 이유로 정죄가 오가면 인관관계가 단절되어 전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일상의 삶에서 가족 배려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기독교전문훈련센터 대표인 김태형은 가족 전도의 단계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⁴⁷⁾

첫째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가족 전도에서 가장 쉬운 것은 기도이며, 중보를 부탁하고 함께 연합해 작정 기도를 하라.

둘째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신앙생활 후 말이나 행동이 날로 성숙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는, 기회를 엿보다가 자인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얘기해준다. 이는 선포보다 진솔한 고백의 형태가 좋다.

47) 김태형, “가족,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 79.

넷째는,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나타내면 복음을 잘 풀어서 전해줘야 한다.

다섯째는,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는, 불신 가족을 교회로 데려왔다면 이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교회에 한 번 왔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으로 일대일 양육을 해야 한다고 재언하고 있다.

정은숙이 “가족전도, 사랑으로 인내하라”라는 글에서 말하는 가족 전도의 노하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이 담긴 행동은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열쇠이다. 또한 꾸준히 기도로 공략하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서원기도 등 정혜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 이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터전인 만큼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게 될 것이다.⁴⁸⁾

결론적으로, 가족 전도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랑과 본을 보이는 인간관계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족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천국시민이 될 것이다.

48) 정은숙, “가족전도, 사랑으로 인내하라”, 32-33.

제 3 장

전도사역 활성화와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상관성

본 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전도의 현 주소를 연구하고 분석하려 한다. 한국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한 것이 주요했던 것이다. 지역교회가 전도에 힘을 쓴 결과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 교회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전도중심의 교회론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전도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성장한 교회의 사례를 연구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전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다.

제 1 절 전도중심의 교회론

교회는 전도가 중심이어야 한다.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은 그의 책, *복음전도*에서 오늘날 전 세계 전역에 걸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그것은 전도에 대한 긴박함의 결여다. 그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집에 불이 났는데 가구를 옮기며 집안을 정돈하는 것처럼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런 상태로 교회가 복음전파에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화석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⁴⁹⁾ 그는 “전도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이지만, 전도의 목적과 수단은 교회이다”⁵⁰⁾ 라고 말했다. 존 스토틀은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위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⁵¹⁾라고 언급한

49) David Watson,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11-17.

50) Ibid., 173.

다. 그러므로 모든 지상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한다.

1. 교회의 본질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는 존재했다. 언약의 공동체요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였다. 교회가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강림을 통해서였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일반적인 정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개념은 그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⁵²⁾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민족적,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이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다.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데 지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이기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소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⁵³⁾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다(엡 4:15-16).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시요 교회는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들이다. 모든 지체들은 머리를 향한다. 유기체란 서로 의존하며 관계와 기능이 전체와의 조화에 따라 크게 적용받는 생명의 관계이다.⁵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신자들의 몸이며 공동체라고 했다. 또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유착되어 통일을 이룬다고 했다.⁵⁵⁾

51) John R. W. Stott, *전도하지 않는 죄*, 35.

52) Edmond Clowney, *당신의 교회생활은*, 서원교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12.

5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72-74.

54) Ben Johnson, *복음전도입문*, 전용재 역 (서울: 종로서적, 1986), 40-41.

55) 이종성, *칼빈* (서울: 기독교서회, 1998), 137-13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로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는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가 없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각 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몸을 섬겨야 한다. 은사와 직분으로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개개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2. 교회의 사명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증거의 일차적 전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증거를 위임하신다. 제일 먼저 천사에게 위임을 하시고(눅 2:8-14), 다음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행 10:36).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요 15:26).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전도를 위임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용하시는 복음전도자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이다.⁵⁶⁾ 전도와 교회의 사명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이다.

안디옥교회의 경우 사도행전 11장 26절과 13장 1-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 금식했다. 온 교회가 전도에 하나 되어 힘썼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역동적인 전도자들이었다.⁵⁷⁾

C. E. 오토리(C. E. Autrey)는 그의 책, *기본 전도(Basic Evangelism)*에서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전도의 중요성은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여섯째 '국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해외 선교'까지 할 수 있다.⁵⁸⁾

56) John R. W. Stott, *전도하지 않는 죄*, 62-64.

57) 이상규, *사영리의 적용과 실제,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두란노, 1992), 34.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본질은 전도에 있다. 다른 어떤 것 보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전도임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교회가 전도하는 것이야 말로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3. 교회성장과 전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첫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둘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며, 셋째, 교회의 최대 사명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가장 어려워한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전도는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전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동시에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김상현은 그의 저서 *전도중심교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말한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막 1:14-15).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며,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전도하는 일이다.⁵⁹⁾

결국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이며,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 핵심 가치는 전도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성장과 전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곧 복음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전도는 곧 교회성장의 근간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절 한국교회에 사용되는 전도법

한국 교회는 지역교회 개 교회별로 전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전도하는 교회

58) C. E. Autrey,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69), 52-57.

59)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6), 90.

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개 교회별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전도폭발훈련

‘전도폭발훈련’은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훈련자가 두 명의 예비 훈련자(훈련생)와 짝을 이루어 현장사역을 통해 실제 전도훈련 시범을 보임으로 자신감과 감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훈련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전도훈련이다. 전도폭발훈련은 단지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가르칠 훈련자 한 명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개해 나가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이다. 내용과 방법을 쉽게 가르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를 섬기도록 돕는 훈련이다.⁶⁰⁾

문인현은 전도폭발훈련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다.⁶¹⁾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둘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셋째,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넷째,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수행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다섯째,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복음전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인식을 갖도록 한다. 여기에 몇 가지 장점을 더한다면 전도에 대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민남기는 전도폭발훈련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⁶²⁾ 첫째, 우선 13주간(4개월) 전도훈련을 하며 학교수업보다 더 엄격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훈련자인 목회자에게 생긴다. 이것은 훈련생에게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서론에서 항상 교회의 배경을 묻거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묻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 미국에서는 집착점으로 가능하나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셋째, 인간을 죄인

60) James Kennedy, *전도폭발*,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59.

61) 문인현, “복음전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강일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110.

62) 민남기, *한국식 전도*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7), 40-46.

으로 소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넷째, 처음 복음을 대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교회에까지 인도하려는 과정에 무리가 따른다. 다섯째, 훈련생이 긴 에문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여섯째, 복음전도자가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거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전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증가하는 평신도 전도자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모집하여 무장시키고 배가시켜야 한다는 취지하에 15주간에 걸친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 대하여 훈련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평신도 전도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가 당면했던 특수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언어와 문화권이 각기 다른 세계 각처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혹은 빈민지구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용해 왔다.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가능성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관한 신약성경의 원리 몇 가지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⁶³⁾

이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데 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훈련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중 집회나 예배시의 강단설교를 통한 전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교회를 활동기지로 삼고 전개해 나가는 개인전도이다. 여기서 ‘폭발’이라는 용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훈련에서 전도할 때 필요로 하는 복음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

63) James Kennedy, 전도폭발, 21.

은 서론, 복음, 결신, 즉석 양육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은 5가지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간증, 그리고 주제 전환을 위한 질문과 함께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한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당신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질문 2.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그가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영생)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복음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부분은 5가지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혜

천국(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롬 6:23).

천국(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엡 2:8-9).

주제 전환: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 인간

인간은 죄인입니다(롬 3:23).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잠 14:12).

주제 전환: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3)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요일 4:8).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출 34:7).

주제 전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니다.

(4)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요 1:1, 14; 20:28).

그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영생)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제 전환: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5) 믿음

천국(영생)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현세적 믿음입니다(마 8:29; 약 2:19).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행 6:31).

다. 결신

복음제시 이후, 결신을 위한 질문과 초청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결신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결신설명: 이것은 일생에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신뢰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계 3:20).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후 결신기도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

라. 즉석 양육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환영하는 인사를 하고 양육소책자로 “함께 성장해요”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성장의 방편으로서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회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2. 총동원전도

총동원 전도법은 70년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전도법이다. 총동원 전도법은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가 총동원 전도법에 진 빛은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총동원주일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정착시켜서 성장한 교회도 많다. 총동원 전도는 일 년에 몇 차례 전도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 자신이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다. 한번 교회에 초대받아 온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진 전도방법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가져왔으나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⁶⁴⁾

훈련내용과 방법으로는 일정한 날짜를 정한다. 이날 모든 사람들을 모셔오기로 작정한다. 겨울보다 가을이 가을보다는 봄이 봄보다는 초여름이 가장 참여 하기 쉽다. 대부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기간을 정해 놓는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준비기간을 정한다. 동기부여를 위해 전도 간증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전도의 중요성에 관한 설교를 한다. 또한 총동원 전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를 답사하기도 한다. 동기부여가 총동원 전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위해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전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강의 받기도 하고 실습하기도 한다.

총동원 전도의 장점은 전도대상자를 초대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준다. 더불어 전교인이 전도로 하나 될 수 있다. 전교인이 단합하여 전도에 열정을 쏟고 특히 지역 내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전도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강화된다.⁶⁵⁾

반면 총동원 전도법의 단점은 전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단회적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칫 선물공세로 전도하는 경향도 있다. 많은 물량적 지출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전도하는 것이 마치 성과로 생각해 교인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의식이 생겨 전도대상자를 빼앗아 오는 부작용도 생긴다. 무엇보다 한 번 출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후속양육이 부족하여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다. 또한 억지로 전도출석 숫자를 채우기 위해 교인을 불러오거나 뺏어오기

64) 나겸일,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209.

65) 나겸일, *총동원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샘물사, 1992), 205.

경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교회 내에서도 멀리 사는 친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과당경쟁이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총동원주일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교회의 성도들을 싹쓸이 하여 개척교회 혹은 소형교회들로 하여금 상처를 줄 수도 있다.

3. 사영리 전도법

사영리전도법은 1951년 대학생신교회의 총재 빌 브라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전도법이 1958년에 한국 CCC 총재인 김준곤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도법이다. 그 이후 사영리 전도법은 한국 교회에 널리 소개되어 한국 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영리 전도법은 구원에 이르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등 네 개의 원리와 영접, 기도 그리고 구원을 확신시키는 방법, 신앙성장의 원리와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사영리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⁶⁾

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사영리의 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관한 메시지(요 3:16, 10:10)로 시작하며 왜 풍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2원리와 연결시킨다. 2원리는 인간론으로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살인, 도둑질, 거짓말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죄라고 한다(롬 3:23, 6:23). 3원리는 기독교론으로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를 설명한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롬 5:8; 고전 15:3-6; 요 14:6). 4원리는 구원론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3원리까지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나 4원리는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서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다(요 1:12; 엡 2:8-9; 계 3:20).

이 사영리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약 10분 내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므로, 그 자체가 전도훈련을 위한 중심교재로 활용이 된다. 또 4원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 쉽고 명료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자이다. 물론, 이 책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는 아니지

66) 이상규, *사영리의 적용과 실제,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35-39.

만,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온 전도용 책자이다.⁶⁷⁾ 왜냐하면 이 책자 속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전도법은 '4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의 네 가지 단계의 영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제 1 원리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 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3:16), 하나님의 계획(요 10:10)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 제 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롬 3:23).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롬 6:23).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 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제 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롬 5:8).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3-6).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요 14:6).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 제 4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67) 4영리는 인터넷상에서 144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소책자로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내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요 1:12).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엡 2:8-9).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⁶⁸⁾

이와 같은 설명이후 영접기도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는 사영리를 통해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짐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봉사하기를 권면한다.

첫째, 사영리의 장점으로 사영리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 핵심으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촉구하는 장점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로 연결되는 삶도 간략히 설명해준다.

둘째, 사영리의 단점으로 우선 사영리는 전도자가 항상 사영리의 소책자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도 대상자의 경우 젊은이들의 경우는 용이하나 노년층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영리 전도전략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영접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결신의 진실성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다.

4. 기타 전도 방법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전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

68) 한국대학생신교회 편, *4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순출판사, 1999), 2-15.

계전도, 축호전도, 이슬비전도편지 등으로 다양한 전도는 교회성장의 또 다른 성장요인이라 생각한다.

현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중심 전도가 대두되고 있다. 관계전도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의미 있는 친분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전도전략을 말한다. 관계중심 전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동료, 클럽 회원 등에게 전도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관계전도는 인간내면의 추구, 영성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본능적으로 가족과 이웃을 그리워하는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⁶⁹⁾

축호전도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전도방법중의 하나이다.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축호전도는 일정한 형식은 없다. 대부분의 교회마다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도이론을 적용하여 복음을 전한다. 아파트, 주택가, 상가건물들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전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슬비전도는 기존의 전도방법이 주로 불량적이고 전시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엄청난 힘을 투자하여 전도하지만 별로 사역에 열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규장문화사에서 여운학 장로가 예쁜 엽서를 통해서 각 계층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방법이다.⁷⁰⁾ 이 이슬비전도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리즈를 선택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편지 전도법이다.

이슬비전도 사역은 전도의 한 방법으로 불신자나 태신자(胎信者)와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규장출판사에서 개발한 '이슬비 전도편지'를 전도지로 활용하는 문서전도 사역이다. 대상자의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다양한 엽서를 1년 정도 보내고 중간에 좋은 반응이 있거나 계속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1년 정도 꾸준히 엽서를 보내고 후에 교회에서 세생명축제나 특별행사를 개최할 때 이것을 메개로 하여 상대방을 교회로 초청함으로써 전도로 연결 짓는 것이다. 이것을 '이슬비 초청 잔치'라 하여

69) 이상만, *오이코스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20-21.

70) 여운학, *제 3기 이슬비전도학교 강의안* (서울: 규장문화사, 1992), 56.

엽서로 대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에 직접 참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엽서 수신인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슬비전도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이슬비전도 학교'를 개설하여 사랑의 엽서를 보내고 진화하고 초청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히 사역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다양한 전도법을 통해 전도에 힘써왔다. 전도방법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떤 전도법을 절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에 맞는 전도법을 개발해서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다.

제 3 절 전도를 통한 지역교회의 성장에 대한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전도를 통하여 성장한 세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과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와 신일교회의 세생명축제가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먼저, 사랑의교회는 본 연구자가 7년간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로,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은 사랑의교회에서 모든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왕성교회에서 3년간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다. 태신자전도는 왕성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전도운동이다. 총동원주일의 약점을 보완하여 불신자를 태신자로 삼고 그리고 기도로 품고 전도하는 생명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전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태신자전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앞의 두 교회는 대형교회이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연구 교회는 신일교회로 정했다. 신일교회의 이권희목사는 본 연구자와 같은 목회철학과 또한 청빙받아서 후임목사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역하는 면에서 동질성이 있기에 신일교회의 세생명축제에 관련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1.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

사랑의교회 전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도폭발훈련 사역이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과 사역의 확장으로 주어진 결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의 역사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이 시작되는 계기는 국제전도폭발 한국 본부에서 실시하는 초교과적인 지도자 임상훈련에 1985년 최홍준 목사와 강명옥 전도사가 처음 참석하여 훈련을 받고 와서 접목함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로 사랑의 교회 전도폭발훈련은 1985년에 제 1기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2기씩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⁷¹⁾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을 옥한흠 목사가 접하게 된 일화는 1985년 당시에 남서울 교회를 시무하는 홍정길 목사의 초청으로 옥한흠 목사는 남서울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폭발 훈련 임상훈련에 초대받게 된다. 평소 홍정길 목사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잠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던 옥한흠 목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고 그것이 임상훈련에 참여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기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시의 훈련 담당이었던 남서울 교회 양승헌 목사에게 가르침을 부탁했다. 홍정길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옥한흠 목사를 존경한다고 한다. 옥목사에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회고하고 있다.⁷²⁾

사랑의교회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서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옥한흠목사가 오래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부분이었는데 전도폭발훈련으로 제자훈련과의 상생의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나.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 내용

사랑의 교회는 옥한흠목사가 개척하여 초기부터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철저히 무장시켜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했다. 전도폭발훈련은 제자훈련을 보충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무장시켜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71)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70.

72) Ibid, 70.

사랑의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한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다락방 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훈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다.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은 1985년에 제 1기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2기씩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는 2월 초-6월 초까지, 하반기 9월 초-12월 초까지 나누어있다.

수요반은 사역훈련 수료자에 한해 지원 받는다. 화요반은 제자훈련 수료자 또는 청년, 대학부 리더 또는 주일학교 교사(교사훈련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 교사로 섬긴자로서 주일학교 담당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 받는다. 타교회 지원자는 담임목사 추천서를 받고, 제자훈련을 수료자 수료한 자로서 사랑의교회 전도폭발 담당교역자와 면담을 거쳐 10퍼센트 이내에서만 지원 받는다.

교육과정은 크게 훈련생 과정과 훈련자 과정의 두 단계로 나뉜다. 훈련자과정은 고급 및 상급 훈련자 과정으로 나뉜다. 1단계는 훈련생 가정이고 2단계는 훈련자 과정이다. 그리고 3단계 이상을 고급 과정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훈련생 과정-효과적인 복음제시 훈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둘째, 효과적인 훈련자 과정-1단계 심화훈련으로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켜 영혼을 건지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현장에서의 전도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고급 훈련자 과정-삶의 문제 처리훈련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찾아내는 방법과 이 문제들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법을 배운다.

넷째, 상급 훈련자 과정-반대의견 처리훈련으로 훈련자들이 자기 자신과 훈련생들이 가진 의심,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는 의심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무장시키며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반대의견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다섯째, 5단계-전도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보다 효과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각 단계별 학기 진행과정은 부록에 실려 있다.

한 팀이 된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두 사람은 함께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없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제시를 하게 된다. 이 현장실습이야말로 전도폭발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감동적인 부분이다. 수업을 강의로만 배울 수가 없듯이 전도폭발훈련도 강의로만 배우지 않고 반드시 현장전도실습을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처음에는 훈련자가 진도대상자를 집속하여 복음 제시하는 동안 훈련생은 보고, 듣고, 깨닫고, 기도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교과 과정이 진행되면서 훈련생은 점진적으로 복음제시 내용을 익히게 되고 복음제시를 부분적으로 참여하다가 실력이 향상되면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훈련생에게 넘겨주게 된다. 훈련자는 점점 복음제시 분량을 줄여 나가고 훈련생은 점점 복음제시 분량을 늘여 나가서 훈련 하반기쯤에는 훈련생 혼자서 복음제시 전체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전도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말하면서 기도를 놓쳐 버릴 수가 없다. 전폭 훈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한다.

훈련생을 입학하면서 2명의 기도 후원자를 스스로 모집한다. 그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다음 학기에 훈련생으로 입학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을 기도후원자로 요청한다.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마다 기도후원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전도 시간 등을 알려 주고 그 시간에 기도 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현장을 다녀와서는 다시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도후원자와 경험을 나눈다. 기도후원자는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전폭 훈련에 초대받아 현장을 견학하고 훈련생의 기도 요청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훈련자와 훈련생은 강의가 있기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암기를 점검하고 오늘 이루어질 전도현장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현장수업중에 지난 주간의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기도제목을 그룹원들과 나눈다. 그룹장은 각조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용지에 정리를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요청한다. 중보 기도실에서는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훈련 현장에서 온 긴급한 기도의 요청에 대하여 중보기도로 기원한다.

훈련생은 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다락방에서도 그 주간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순장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순원들의 기도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다락방 전체가 항

상 구령의 열정에 노출 되도록 돕는다.

전도 폭발 훈련은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모든 기도하는 그룹에게 기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3인의 조원들과 15명 정도의 그룹원들 그리고 순장과 순원들이 중보로 기도지원을 한다. 기기에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다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30여명이 기도 지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 전폭 훈련에 넘치는 은혜와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후원이 많다는 것이다.

다.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평가

전도사역이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전도폭발 훈련의 건강성은 전도 대상자가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방에서 만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50퍼센트 이상의 결신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교회 전도사역의 건강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전도의 주체가 되는 훈련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박명배는 그의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에 대해서 “1985년부터 시행된 사랑의 교회 전도폭발훈련은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효과적으로 전도사역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결신율을 보면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건강한 교회사역의 열매이며 또한 전도폭발훈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준비된 기도와 철저한 교육, 헌신된 훈련생, 훈련자들이 있기 때문이다.”⁷³⁾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전도폭발훈련이 건강한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역동적인 전도사역은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한 성경적 본질에 충실한 교회성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본다.

2. 왕성교회의 대신자전도

한국 교회는 70년대 부흥사경회와 대중집회(엑스포로 '74)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73)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91.

해왔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총동원 전도운동이 유행했다. 그러나 이런 총동원 전도운동은 새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1회성 행사로 끝나는 한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가 극히 빈약한 단점을 드러냈다. 이런 총동원 전도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킨 전도법이 '태신자 전도법'이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왕성교회는 '태신자 전도운동'으로 1회성 전도운동을 지양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충실한 전도방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태신자 전도 운동'을 실시했다. '태신자 전도 운동'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⁷⁴⁾

왕성교회의 부흥과 태신자운동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왕성교회하면 가장 먼저 태신자운동을 떠올린다. 담임목사인 길자연의 기도와 연구로 시작된 '태신자운동'은 태(胎)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품은 것과 같이 영적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신(信)자의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잉태하고 기도하여 출생시킬 뿐만 아니라 헌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영적, 육적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왕성교회가 1980년대 후반까지 매년 2배씩 성장하던 것이 2000명이 넘으면서 성장이 멈추자 돌파구를 찾았고 그 후 8년 만에 4배로 성장하여 한국교회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⁷⁵⁾

'태신자'란 말은 길자연목사의 목회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믿음으로 작정하고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출산(결신)하는 것을 말한다.⁷⁶⁾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는 전도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전도행사의 일면으로 일시적인 교회행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행사기간 동안 하루 중

74) 길자연, *왕성교회 태신자 전도운동* (서울: 도서출판, 왕성), 13.

75) 태신자전도클리닉, "생명의 사역, 태신자 전도,"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03.

76) 왕성교회, *태신자전도운동 공개세미나 교안* (1999년).

몇 시간을 택하여 전도지를 나눠주며, 어느 한 기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총동원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전도전략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결실도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단점들을 지양하면서 지속적인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개발해 온 전도전략이 태신자전도운동이다. 그 원리는 7가지로 정리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도로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데, 생명의 원리, 건강의 원리, 관계의 원리, 사랑의 원리, 모방의 원리, 출산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태신자 전도 운동을 위해 다음의 7가지의 단계를 기치면서 진행된다. 준비 단계, 예비작정 단계, 본작정 단계, 접근단계, 예비초청 단계(관계증진 단계/관계심화 단계), 본초청 및 등록 단계, 사후관리(양육) 단계이다.⁷⁷⁾

그리고 태신자 전도운동의 4가지 특성을 기도의 산물, 관계중심전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승화, 태신자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태신자 전도운동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을 동시에 가져오는 진정한 부흥운동이라는 것이다.

김선일은 태신자 전도는 “생명체의 출생과 양육이라는 메타포(metaphor)로 전도 사역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민 초청예배라는 총력초청단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총동원전도 같은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보면 전도의 새로운 이해와 결합들이 제법 진화된 모습을 보인다”⁷⁸⁾고 말한다. 태신자들이 거부감이 없이 일종의 구도자 중심의 예배와 유사한 성격의 예배와 지속적인 돌보는 정착과 양육 특히 영적이 아이를 품고 태교하며, 출산하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생명체 원리로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꼼꼼하게 단계화시키고 각 단계마다 실천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쉽고 편안하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익명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웃과 교류를 세우는 것과 생명체의 원리가 더욱 생태적인 원리로 전화되어야 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최동규는 태신자전도법이 “성경에서 직접 그 원리를 추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

77) 태신자전도클리닉, “생명의 사역, 태신자 전도,” 104-105.

78) 김선일, “생명체 원리로 풀이낸 전도운동, 태신자 전도,”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10.

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과 영적 출산 그리고 그것을 사역의 과정에 적용한 사도바울의 말씀으로부터 전도원리를 추출함으로써 매우 확고한 설득력을 가지다”고 말한다.⁷⁹⁾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토종전도법이며, 특히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경에 고안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전도방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자연적 교회성장이 전제하고 있는 유기체적 생명체의 원리와 유사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태신자 전도는 전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도자들에게 복음제시를 강조하지 않고 단지 관계형성을 위해 적절한 때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권할 뿐 전도자들의 삶이 강조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태신자 전도는 생명체의 원리에 따라 전도자의 삶과 의식의 DNA가 전도대상자에게 흘러간다는 진제를 가지고 있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다.⁸⁰⁾

태신자 전도법은 종합적인 전도 프로그램이다. 교회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교인이 연초 또는 수시로 전도할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물색한 후 교인 한 사람이 2-3명의 태신자를 작성한다. 작성한 교인은 자신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거나 초청하여 수시로 만난다. 그리고 태신자의 마음이 열려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곧 인도하여 결신의 단계를 거쳐 교회의 등록을 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태신자가 평소에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연중 1-2회 ‘전교인 태신자 초청주일’을 정하여 구원으로의 초청을 한다. 태신자 전도는 단회적인 인증행사로 끝나는 총동원주일과는 다르다.

왕성교회는 태신자 전도법은 전교인에게 평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전도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방법이요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새 생명 운동이다. 태신자 전도는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교인 전도운동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수의 성도들은 전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교회는 태신자 운동의 결과로 자연 증가율을 제외하고도 매년 400명 이상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⁸¹⁾

79) 최동규, “한국교회의 토종 전도법, 태신자 전도”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13.

80) Ibid., 115.

3. 신일교회의 새생명축제

1970년대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교회마다 유행처럼 가졌던 행사가 부흥회였다.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부흥회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에 요원의 불길처럼 변진 것이 ‘총동원주일’이었다. 우선 총동원주일은 불신자들 신자들 상관없이 한 번만 교회에 데려오면 된다는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⁸²⁾

이는 전도의 의의나 목적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자연히 집회가 한 번으로 끝나서 열매가 부족하고 정착에 실패했다. ‘대각성 전도집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로 자리매김을 해서 점차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교회마다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다. 이 ‘대각성 전도집회’가 후에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생명축제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결신한 영혼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전도 운동’이다. 이 새생명축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영적 각성을 하게하고 각성한 성도들로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생명축제는 먼저 교회 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대각성운동’이다.

반면 새생명축제는 자신이 정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일 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섬김이 요구된다. 새생명축제 당일에는 태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양육까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생명축제는 목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새생명축제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영혼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만이 살 길이다. 전도를 하는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전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인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전도가 필요하다.

81) 길자연, *왕성교회 태신자 전도운동*, 31.

82)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신일교회 새생명축제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63-66.

신일교회의 새생명축제는 역사가 길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일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교회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그렇듯이 신일교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 않았다. 2002년에 ‘제 1 차 새생명축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새생명축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점차로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신자들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후 매년 새생명축제는 신일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생명축제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매년 새생명축제를 통해 등록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새생명축제가 신일교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지난 2001년부터 7회를 해오는데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가 남달랐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새생명축제 기간 동안 온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생명력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행 2:47). 새생명축제의 장점은 전도를 교회의 사역으로 감당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아니다. 이벤트도 아니다. 전 성도가 일년 동안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연말에 산고를 통해 새 생명을 낳는 일이다. 이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전력하는 사역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신일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새생명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전력해왔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신일교회의 전도전략의 향후 과제가 있다. 본 연구자는 그것을 ‘섬김의 전도’라고 하고 싶다. ‘섬김 전도’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진로나 직업,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불신자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전도전략이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구체적 실현이 된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결국 회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섬김 전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한국교회에 전도 페러다임 제언

도대체 전도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나요? 노력하고 실천한 만큼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기에 털어 놓는 푸념일 것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내부적 요소들과 외부적 요소를 살펴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도 페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도의 문을 막는 요인

전도의 문을 막는 교회의 내적 요인은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최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의 도구화, 변영의 신학과 지도자의 타락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의 도구화는 전도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전도는 사람이 전하나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또한 전도는 선포나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 삼음에서 끝나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돼 전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하도균은 “전도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나 행사로 전락하고 있어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고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과 방법으로 오해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며 성도들에게 전도할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⁸³⁾고 한다. 결국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게 되어 전도의 결과를 너무 강조하게 되어, 전도하는 과정은 무시되어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변영의 신학이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이 상실되게 된다. 이것은 전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전도는 기독교 본질의 문제와 관련

83) 하도균,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 56.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거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힘들고 어려워지며 급기야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에서 변영의 신학은 사버니즘에 근원을 둔 기복신앙에 편승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를 물질 지상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상실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퇴색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지만, 이와 관련해 전도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너무 높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요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세습의 문제와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의 현장은 더욱 힘들고 어렵다. 전도의 문을 막는 교회 외적 요인으로는 반기독교 세력의 확산과 스포츠 연예문화의 영향과 포스트모더니즘과 물질만능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기독교 세력은 일명 ‘안티기독교’ 세력들이다. 그들은 허구성의 성경,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 거대한 기업으로서의 교회, 개혁이 불가능한 기독교 등의 세부적인 비난 내용들을 세상에 외치며 활발히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세상에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의 생명을 맛보여 주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왜곡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전도의 큰 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전도자들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전도의 문을 막는 요소는 기대 연예인 사업과 스포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전도는 피전도자들의 한계와 불안, 그리고 삶의 무력함을 복음이라는 본질로 파고 들어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미 스포츠와 연예계 사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스포츠와 연예계가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넘어서는 참된 평강과 기쁨, 생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⁸⁴⁾

또 하나의 요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와 ‘절대적’이라는 말이 영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발생된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고 보며, 종교는 역사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조금

84) 하도균,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59.

씩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는 다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지 않고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는 그 영향을 받아 물질 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 물질 지상주의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회에 흘러들어온 물질 지상주의는 기복신앙과 합쳐져 극도의 개인주의 현상으로 치닫거나, 교회가 본질을 외면하고 겉치레에 치중하는 모습을 낳게 되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개셔야 할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게 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본질이 줄어가고 물질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는 하나의 생명력을 잃은 공허한 의침에 불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효율적이고도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본질로 되돌아가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영원의 진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한다.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만으로 세상을 끌어들이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영원이라는 선물로 무장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은 영원이라는 가치를 만날 때 비로소 굴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도 패러다임 제언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 할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딤후 4:1-5). 또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지상명령이다(마 28:19-20). 땅 끝까지 이르도록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명령이다. 하지만 세상이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음 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 통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기존의 전통적 방법으로 전도할 때, 호감은 커녕 반감을 가지고 대한다. 그 어느 때보다 반기독교 세력이 연대해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있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척교회는 개점휴업상태고, 기성교회는 열매 없는 형식적인 전도에 지쳐 있다. 총체적인 전도의 위기가 온 것이다. 더구나 반기독교 세력은 교회의 일방적인 전도를 거부하고 싫어한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가 전하는 방법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

는 내용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도 그들은 비난과 핍박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의 내용은 불변해도 방법은 시대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전도의 전략적인 방법을 놀랍게도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고신대 교수인 김두식은 “이 시대의 적합한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관계를 형성하고 스토리를 만들며 전도해야 생명의 열매로 연결되어지기에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은 착한 행실로 감동을 끼치고 또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도와 초청을 통한 전도방법을 해야한다.”⁸⁵⁾라고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전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감동을 끼치며 전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침이었던 것이다. 그 착한 행실은 지하철역에 우산을 빌려주는 전도나 불우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전도,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나누는 전도, 지역 빈민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도, 택시기사에게 차와 생수 나누기 전도, 등학교길 안전 도우미 전도, 학교 앞 교통정리 전도, 밤거리 순찰 및 방범 전도 등을 통해서 교회가 선한 행위로 이웃을 감동시키는 섬김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전도 지향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으며 부흥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가 안 보여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열매는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은 바울의 전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85) 김두식, “한국교회,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 65.

말씀하고 있다. 유익을 끼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부방 전도, 어머니 도서관, 어머니 기도회, 청소년 상담 센터, 노인 대학, 문화센터, 스포츠 전도, 의료 서비스, 지역음악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전도가 일어나야 한다.

지역교회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가는 전통적 방법 하나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만이 전도의 최선이라 고집하지도 말고 거리로 나가는 전통적 전도와 함께 이제는 대중을 교회로 찾아오게 만드는 창의적 방법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안해야 한다.

전도는 소수의 은혜 받은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된 사명이다. 전도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제 4 장 금곡교회 목회환경 분석

본 장에서는 전도사역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금곡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금곡교회의 목회 환경과 함께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금곡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그리고 금곡교회의 목회환경을 살펴본 후에, 금곡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다루고 금곡교회에서의 전도사역의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제 1 절 금곡교회의 역사와 지역환경

본 절에서는 금곡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금곡교회가 걸어온 지난 68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1. 금곡교회의 역사

금곡교회는 어두웠던 일제의 강점기가 끝난 후,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47년 8월 15일에 경기도 남양주 동막의 우상순씨 사가에서 4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금곡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68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배주 장년 출석 기준으로 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는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에서 싹이 터서 자라난 나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금곡교회의 지난 날은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금곡교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금곡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란 창립표어 아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고 있다. 교회목표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이다.

금곡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기 원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날을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이다. 금곡교회는 교회학교의 교육을 통해 자라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심어줌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교육에 관심과 힘을 모으는 교회이다.

2. 금곡교회의 지역적 특성

본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금곡동은 쑥고개·돌팍고개·여우고개 등으로 동남북이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 홍릉천이 흐른다. 이곳이 미금면이었을 당시, 미금면의 '금' 자와 골이 깊은 계곡이 있다고 하여 '곡' 자를 따서 금곡리라고 한 태서 동 이름이 유래하였다.

이곳은 원래 양주군이었는데,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면서 남양주군 미금읍 금곡리로 바뀐 뒤 1989년 미금시 금곡동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폐지하고 통합시를 신설하면서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개편되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같으며, 자연마을로는 군장·동막·무대·양곡·어룡 등이 있다.

이곳은 남양주시의 중심부에 속하며 도시지역과 녹지공간이 공존한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기반 형성이 미흡하다. 남양주시청, 금곡역, 금곡우체국, 남양주실내체육관 등이 있으며, 경춘선 철도와 46번 국도가 가로지른다.

문화재로는 홍릉·유릉(사적 207)과 금곡리 고분이 있다. 홍릉은 조선 제26대 고종과 그의 비 명성황후의 능이며, 유릉은 순종과 그의 비 순명황후의 능이다.

요약하자면, 금곡동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하나는 도농지역이라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그 지역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재인 왕릉이 있어 개발과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에 발

목이 묶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남양주시는 동북쪽은 가평군, 동쪽은 북한강을 끼고 양평군, 서북쪽은 의정부시, 서쪽은 서울특별시, 남쪽은 구리시·하남시·광주시, 북쪽은 포천시와 접하고 있다. 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63만 명 정도가 되며, 행정구역으로는 5개 읍, 4개 면, 7개 동, 330개 리가 있다. 시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다.⁸⁶⁾ <표 1>은 남양주시의 각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을 2014년 12월 기준으로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 남양주시 각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2014.12.31.현재)⁸⁷⁾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계	남	여	
총 계	636,256	318,208	318,048	238,111
와 부 읍	70,392	34,868	35,524	25,095
진 접 읍	95,716	48,368	47,348	34,900
화 도 읍	98,183	49,525	48,658	38,390
진 건 읍	28,155	14,472	13,683	11,305
오 남 읍	55,422	27,803	27,619	20,564
별 내 면	21,585	10,714	10,871	8,431
퇴계원면	32,110	16,031	16,079	11,880
수 동 면	8,683	4,538	4,145	4,297
조 안 면	4,304	2,207	2,097	1,879
호 평 동	45,775	22,452	23,323	16,332
평 내 동	42,202	20,809	21,393	15,033
금 곡 동	22,301	11,334	10,967	9,265
양 정 동	5,424	2,975	2,449	2,689
지 금 동	16,961	8,440	8,521	6,536
도 농 동	39,426	19,207	20,219	13,416
별 내 동	49,617	24,465	25,152	18,099

86) 조춘용, 이도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online: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htm.

87) 남양주시청 <http://www.nyj.go.kr/>

남양주시의 교육기관으로는 2008년 현재 초등학교 46개 교(분교 2개 교), 중학교 26개 교, 고등학교 13개 교가 있으며, 경북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이 있다. 1982년 개원한 남양주문화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학문·사상을 기리는 다산문화제를 매년 개최하면서 백일장 개최, 향토지 간행과 향토자료 수집 등에 힘쓰고 있다. 시립도서관 또한 시민의 교육과 문화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예총 남양주지부·실내체육관 등 문화·예술단체와 체육시설이 있다.

종교기관은 불교사찰 65개, 개신교교회 225개, 천주교성당 8개가 있다.

제 2 절 금곡교회의 복회환경

본 절에서는 금곡교회의 복회환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금곡교회의 창립표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이다. 1대 목사로 시작하여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에 근거하여 금곡교회의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68년을 섬기고 있다.

신앙은 믿음에 그 출발점이 있으나 신앙의 진의는 성도의 삶으로 증명되기에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곡교회는 1대 안성수목사, 2대 채영간목사, 3대 이면수목사로 이어 창립표어에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복회를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로 데살로니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금곡교회의 성도의 삶을 이 창립표어로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3주동안 전도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아 교회였지만 그 신앙은 모든 교회에 본이 되었던 것처럼 금곡교회는 농촌의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는 그 창립표어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이제는 지역의 도시화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금곡교회의 창립표어는 교회의 신앙고백이며 신앙의 지조로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교회이다.

1대 담임목사 안성수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특별히 사랑하는 생명을 건 사역자이셨기에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다가 강단에서 생을 다하고 주의 복회사명을 마치었다. 그리고 그 후에 2대 담임목사 채영간목사는 부임 후에 창립표어를 보고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꾸며 창립표어대로 교회를 세워 가길 소원하며 목회를 시작하였다. 채영간목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과 머자립 농촌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작은 등대 봉사단을 설립하여 온 교회가 일 년에 2회에 걸쳐서 봉사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24년간을 아름답게 여러 농촌지역과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성도와 함께 하였다.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본 연구자는 이전 원로목사의 뜻과 창립표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같은 생각을 그리고 같은 꿈을 이루는 목회를 하고자 하여 복회의 모양은 다르지만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고 훈련시켜 평신도지도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기도로 세상으로 보내진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명이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란 창립표어와 같은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한다.

2. 봉사와 섬김의 교회

금곡교회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4년간을 작은등대 봉사선교회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교회였다. 작은등대 봉사선교회는 금곡교회의 창립표어와 뜻을 같이하고 있기에 전교인이 함께 하고 헌신과 뜻을 모아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작은등대 봉사선교회의 활동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⁸⁸⁾

88) 금곡교회 작은등대 봉사선교회 회칙에서 인용.

가. 표어 : 땀방울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 봉사대 선언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모두 주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 예수를 위해 값없이 받은 그의 사랑을 또한 소외당한 형제들에게 값없이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생과 어려움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주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까지 봉사의 끈을 놓지 않으며, 내가 아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겸손히 종의 자리에서 봉사할 것을 인숙히 선언한다.

다. 봉사활동

작은등대 봉사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주된 봉사활동은 여름과 겨울에 한차례씩 있는 정기 봉사활동이 있고, 주말에 교사가 없는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말교사 활동이 있으며, 이 외에도 월례 봉사활동 및 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의 정기 봉사활동은 작은등대 봉사선교회의 주된 사역으로서 복음에서 소외된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을 돕는 사역이다. 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세 개 정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 한 지역마다 여름과 겨울에 걸쳐서 다섯 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교회의 이름으로 마을 대민 봉사, 건축, 의료, 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마을 주민을 위한 전도와 봉사활동을 한다.

선교회의 이름을 봉사 선교회로 정한 것은 이 “봉사”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표어의 “땀방울로 하나님께 영광을!”에서 표방하는 것은 “말”로써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의 필요를 대원들의 봉사를 통해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현지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의 활동으로 농어촌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터를 만드는 매개적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 운영

재정과 조직은 교회와 독립되어 운영된다. 이 활동의 고유한 뜻을 이어 나가기 위한 것과 교회 외의 인원에 대한 문호를 개방키 위함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90% 이상이 금곡교회 교인으로 교회와 매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선교비를 지원하지는 않으나, 선교회 활동 영역 확보, 교회 활동과 선교회 활동의 조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활동 시 개인 회비와 찬조금, 이사회 후원금, CMS 후원금, 그리고 수익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조달되고 있다.

마. 활동 역사

기록으로는 6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영간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여 여러 그룹의 사람들과 뜻을 합하여 이 일을 지속하여 왔다. 87년 금곡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후 자연스럽게 금곡교회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중, 89년 신교회로 발족하였다.

작은등대 봉사신교회는 24년간 동안 봉사를 지속적으로 했으며 겨울과 여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3년간을 6회를 방문하며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교육부 성경학교로 시작하여 치료봉사인 수지침, 이미용팀, 전기팀, 도배팀, 근로팀(본당확장 및 화장실 신축 공사 등), 미디어팀, 양방팀, 지원팀, 내민지원팀(고추따기, 풀뽑기), 부흥집회 등의 봉사를 함으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섬기는 사역은 2012부터 2014년까지 교회건축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지만, 금곡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란 꿈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는 '사랑나눔 봉사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불우이웃과 노인을 대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 주님이 금곡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창립표어의 의미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눔을 하는 교회가 되길 준비하고 있다.

3. 고령화된 교회

현대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2015년에는 1000만 명, 2050년에는 179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처럼 교회에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곡교회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금곡교회도 60대 이상의 성도비율이 20대 이상의 장년 성도 중에 38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비전과 꿈을 꾸며 목회계획을 세워야 할까는 중요한 주제라고 본다. 두 가지의 목회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고령화 되어가는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목회를 준비해

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고령화되어가는 인구분포도를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아니면 청장년이 모이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니 편견과 멸시의 대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빈곤과 건강의 문제, 소외와 학대, 죽음의 문제 등으로 고독 속에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노인들 중에는 노년을 잘 적응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활기차게 영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성경에서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고, 공경의 대상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노인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일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인에게 대한 봉사와 선교는 교회가 사회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동안 민간복지자원의 핵심 역할을 해왔고, 이제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회의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복지를 주도하던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외향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참여하거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고, 일반적인 노인복지사업과 차별화 시킨 교회만의 노인복지사업도 부족하다.

또한 현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회 내외의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지역 사회의 전문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비전문가인 성도들 중심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기에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교회는 먼저 노인사업에 대해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교회 노인사업은 대부분 노인을 도우미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노인이 도우미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노인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돕는 교육이나 프로그

램을 도입해야 한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현주소를 알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교회의 노인사역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교회는 노인들을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으로, 닫힌 노인이 아니라 열린 노인으로, 받는 노인이 아니라 주는 노인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노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복지를 향하는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고령화되어가는 나이 분포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와 청장년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 교회로 새로워 져야 한다.

제 3 절 금곡교회에서 전도사역의 필요성

앞 절에서는 금곡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봉사와 섬김의 교회, 고령화된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런 특징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는 건강한 교회로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안이라 본다.

특히 금곡교회가 전도사역 활성화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점에서 왜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다루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전도사역의 비판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금곡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

가. 전도폭발훈련이란

전도폭발훈련은 1960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 로너데일(Fort Lauderdale-

dale, Florida)의 코털릿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목사인 제임스 케네디목사의 체험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⁸⁹⁾ 케네디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복음을 가지고 개개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다.

케네디는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3년간의 실패 끝에 새로운 전도훈련을 개발했는데 한 사람의 전도자를 목사 자신이 직접 데리고 나가서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 전도자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실제훈련을 계속했고 확신을 갖게 되면 또 다른 훈련생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훈련을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전도폭발훈련이 탄생된 것이다.⁹⁰⁾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성도를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도폭발사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이다. 전도폭발은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망 안에서 전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준다. 전도폭발은 우선적으로 개인전도에 초점을 맞춘다. 전도폭발훈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자훈련의 원리이다. 전도에는 반드시 성경적 제자훈련이 뒤따라야만 한다. 제자란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책임을 다하고 다른 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교인을 가리킨다. 건강한 전도폭발훈련을 하는 교회는 영적·숫자적·조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도폭발 무장사역은 초교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조와 원리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 이 신조와 원리들은 전도폭발 복음제시 전체 내용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첫째,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정확무오하며 절대적 권위가 있다.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한다.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의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권능과 영광으로 친히 재림하실 것이다. 넷째,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89) James Kennedy, *전도폭발*, 26.

90) *Ibid*, 27.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영생은 믿음, 곧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써만 받는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모든 참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일곱째, 구원을 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이 다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덟째,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전도활동을 벌이기 위한 일차적인 전도 기지이다. 아홉째, 모든 참 신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열째, 경험이 부족한 전도자는 전도훈련 그룹에 참여하여 좀 더 경험이 많은 전도자가 인도하는 실제 전도 상황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⁹¹⁾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하기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전도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알고, 자신의 중생과 영생의 기쁨도 분명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쉽사리 우리의 입은 열려지지 않는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곤란한 질문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대답하지?’, ‘망신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실컷 다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등의 별의 별 생각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전도폭발은 이런 고민들과 두려움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는 폭발물이다.⁹²⁾

전도폭발훈련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다시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사이에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즉 복음제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대상자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복음에 대해 잔뜩 기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준비단계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종교적 배경과 교회에 대한 관심과 반응,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 간증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감증을 느

91)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http://www.sarang.org>)의 전도폭발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임.

92) 최석범, “전도폭발의 적용과 실제,” 두란노 편,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두란노, 1993), 53-54.

까지도록 만든다. 서론은 그들의 일반생활, 그들의 교회배경, 우리교회, 간증-개인간증과 혹은 교회 간증,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구성된다.⁹³⁾

복음제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의 내용이 어느 한쪽 면으로만 편중되어 강조되지 않도록 복음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그리고 적절한 예화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전도대상자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다.⁹⁴⁾ 복음제시 부분은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결신, 제시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갖도록 도와준다.⁹⁵⁾ 확인질문, 결신질문, 결신설명, 결신기도와 구원의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⁶⁾

즉석양육지도, 갓 태어난 새로운 생명에게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방편을 소개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돕는 단계로 성경, 기도, 예배, 전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새생명축제란

한국 교회의 1970년대는 양적 성장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교회마다 유행처럼 가졌던 부흥회는 기존 신자들에게 열심과 영적 각성에 초점을 두어 성도가 은혜를 받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당시 부흥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부흥회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에 불길처럼 번진 것이 '총동원주일'이었다. '총동원주일'은 부흥회와는 달리 전도 집회의 성격을 띠었다. 총동원주일은 하루를 정해놓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교회에 데려오는 일종의 전도 행사였다. 물론 '총동원주일'은 대중전도의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총동원주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총동원주일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한 번만 교회에 데려오면 된다는 '일

93) Ibid. 55.

94) James Kennedy, *전도폭발*, 39-40.

95) 최석범, "전도폭발의 적용과 실제," 55.

96) James Kennedy, *전도폭발*, 40.

회성 행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연히 성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데려오기에 급급했다. 이는 전도의 의의나 목적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자연히 교회에 정착하거나 신앙의 열매로 결신하는 결과가 적어 총동원주일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로 귀결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교회'에서 '대각성전도집회'를 시작했다. 대각성전도집회는 1982년에는 '사랑의 생활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육한흠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8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생활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도자로 태어나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떻게 이웃에게 접근해서 전도할 것인지에 관해 가르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훈련을 했다. 이 세미나를 마친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대각성전도집회'를 마련했다. 1982년에 1차 '대각성전도집회' 이후 지금까지 매년 대각성전도집회를 해오고 있다. '대각성전도집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로 자리매김을 해서 점차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개 교회마다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다. 이 '대각성전도집회'가 후에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생명축제는 먼저 교회 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대각성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한 교인들로 '보냄 받은 제자'로서 세상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구원 사역이다.

새생명축제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결신한 영혼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전도 운동'이다.

새생명축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영적 각성을 하게하고 각성한 성도들로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생명축제는 먼저 교회 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대각성운동'이다.

새생명축제는 단순히 전도를 위한 집회가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대각성운동인 동시에 복음으로 부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운동이다. 이런 면에서 새생명축제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전도행사인 총동원주일과 구별된다. 총동원주일은 단회적인 교회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만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일엔 후속양육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다. 반면 새생명축제는 자신이 정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일 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섬김이 요구된다. 새생명축제 당일에는 태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양육까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생명축제는 목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새생명축제는 제자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께 전인격적인 위탁자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그 중에 제자도에 근간을 갖고 있는 평신도훈련의 열매는 역시 증인으로서의 변화이다. 평신도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평신도훈련의 일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된 성도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삶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생명축제는 평신도훈련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새생명축제는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근거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최대의 명령이었다. 이 명령의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이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는 현재분사이다. 제자화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지킬 때 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의하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생명축제는 ‘평신도훈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훈련과 새생명축제는 연관이 있다. 평신도훈련이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여 교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새생명축제를 단지 수적 성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

회의 일 년 행사도 아니다. 프로그램도 아니다. 새생명축제는 영혼구원 사역이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평신도훈련은 교회의 연중행사나 사업이 아닌 목회사역으로 이해해야하고 먼저 사람을 세워야한다.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훈련된 일꾼 없이 새생명축제를 실시하면 자칫 실패를 맛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생명축제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영혼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소수의 대형교회들의 성장은 수평이동로 인한 결과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수평이동이 별로 없다. 이러한 목회 현실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만이 살 길이다. 전도를 하는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전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인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전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생명축제는 교회 전체를 전도운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을 맛볼 수 있다. 새생명축제는 교회성장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교회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회성장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성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레고리 바움(Gregory Baum)은 참된 교회 성장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성경이 말하는 교훈하는 원리에 충실하고 그 원리를 붙잡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균형잡힌 교회성장이다. 흔히 교회성장을 양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인 증가와 수적인 증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성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야한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은 필수적인 결과이다.⁹⁷⁾

다. 전도사역에 대한 비판적 진단

금곡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

97) Gregory Baum, *종교와 소외*, 이원규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80-104.

음으로 복회의 승부처를 갖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김선일은 두란노아카데미 전도편에서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⁹⁸⁾ 근대성의 테마 중 하나로 ‘보편성 추구’(quest for universality)의 정신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한 문화에서 검증된 생활 방식은 다른 문화에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서구식 근대화가 분명의 이름으로 비서구 국가들에게 이식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와 같은 보편성 추구 정신이 종종 고유한 토양과 환경을 간과한 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보스톤에서 복회를 하는 한 목회자의 실례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스톤의 한 목회자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전도폭발 세미나에 참석하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자신의 교회에 곧바로 도입을 한다. 전도폭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바로 케뉴일대로 훈련받은 교인들을 길거리로 내보내고 축호전도를 하게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된다. 혹은 아예 복음제시를 시도하지도 못한 교인들이 부지기수 이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보스톤 지역의 교회에서는 실패하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다. 전도폭발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플로리다는 따뜻한 남부의 마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로 나와서 긴 담소를 나누며 또한 인심도 후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길거리 전도 내지 축호 전도를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또한 플루리다 지역은 과거 대각성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바이블벨트에 해당되는 종교적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다. 반면에 보스톤 지역은 청교도들의 본산지인 뉴잉글랜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되었고, 고학력 전문직종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들은 매우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고 더군다나, 북부에 위치한 까닭에 기후도 추운 편이다. 그래서 이웃과 바깥 공기를 따지며 인사 나누는 문화적인 여유가 없는 곳이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적이다. 이런 환경인 까닭에 전도폭발의 축호전도는 초입부터 근본적 장애에 부딪친 것이다.

이 점은 전도폭발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전도폭발을 어떻게 상황화 시킬 것이

98) 김선일, *두란노아카데미 전도편* (서울: 두란노, 2011), 136-138.

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적용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전도폭발이 관계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또한 연결 질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적 고려를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대분화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도자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자극받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도를 여정으로 보는 관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전도를 하는 여정에는 크고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복음전도의 면밀한 청사전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도자의 영성과 감동을 주는 성품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본질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전도적 접근에 필요한 지혜들은 상황 상황마다 함께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창 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의존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새생명축제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과정을 새생명의 출생과 양육이라는 메타포로 재구성한 전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총동원전도 같은 전도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적 진행 과정을 면밀히 보면 전도의 새로운 이해와 시도들이 결합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래서 새생명축제는 만남 단계에서 기존의 성도들과 태신자의 관계가 건강한 양육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초청단계에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일반인들이 태신자로 초청되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예배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새생명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아이를 품고, 데교하며, 출산하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생명체 원리로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새생명축제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을 김선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⁹⁾ 첫째로 세대가 지날수록 익명성을 좋아하고 개인주의화되는 도시인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문화와 폐쇄화되어 가는 주거문화에서 태신자를 작정하여 전도하는 새생명축제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관계망이 풍성한 경우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부재되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는 이웃과의 만남과 교류를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 지며, 그런

99) 김선일, "생명체 원리로 풀어낸 전도운동, 태신자전도", 목회와신학, 2009년 8월, 112.

의미에서 전도 환경을 위한 관계 세우기에 앞서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소통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새생명축제의 진행 과정 중에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과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유기적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그 중심에 전도적 잠재력을 배려할 때, 서로 협력적 관계를 이루며 생태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단지 전도에만 집중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양육,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등과 같은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정된 테신자들은 신앙 공동체의 다양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한 삶의 양식들을 보면서 비로소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금곡교회에서의 전도사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한국 교회가 정채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심은 모두의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며, 유일신 신앙은 강력한 선교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궁극적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보냄 받은 선교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목회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또한 오랫동안 같은 사명을 들은 탓인지 선교나 전도의 요청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위한 동기 부여는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사실 당위적 명령만 반복하는 것은 교인들을 피곤하게 하며,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오늘날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무관심한 문화적 파고 앞에 막혀 있는 느낌이다.

김선일은 그러면 어떻게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역사와는 무관한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천당이나 영생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회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도

록 격려할 것인가? 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의 생생함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함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 공간 안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언하는 ‘선교적 성품’을 형성케 한다.”¹⁰⁰⁾라고 크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믿음으로 선교적 성품을 갖게 됨을 제시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가족 전도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불신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서로의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면 가족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은 가족이 가장 먼저 알게 되기에 변화는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가족이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진정성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전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김선일은 복음과의 만남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도가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써 목회자의 설교이며 또한 그것이 신앙을 갖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메시지는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죄 용서, 영생, 은혜를 통한 구원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심은 구원의 확신과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힘은 복음의 진정성에 있다. 즉 평상시 교인들의 이웃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배려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또 교회가 전도만을 위한 의도적 행사 프로그램보다는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 즉 예배와 평소의 공동체 분위기, 그리고 신자들의 변화된 성품과 이웃 사랑의 모습 등 진정성 있는 복음의 실천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100) 김선일, “하나님 나라와 선교: 요나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적 성품” 그밭씀, 2013년 6월, 81-82.

끼칠 수 있는 것이다.¹⁰¹⁾

이처럼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금곡교회의 전도폭발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현장감 있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장에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세생명축제도 초청주일에 복음 설교를 통해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결신하도록 한다. 그런 면에서 전도폭발과 세생명축제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전도사역이라고 본다.

그리고 교인들의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는 전도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살펴본 것 같이 관계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생명축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출발하기에 전도자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세생명축제는 전도자의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곡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로서 삶의 변화를 훈련하고 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삶이 관계전도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진인적인 성도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면을 정리하면서 금곡교회에 전도사역인 전도폭발과 세생명축제가 갖는 필요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복음으로 승부한다는 것이다. 전도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를 통한 관계전도이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다. 또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01) 김선일, “복음의 진정성이 불신자 전도의 열쇠” 목회와 신학, 2015년 1월, 125.

제 5 장

금곡교회의 전도사역 실제

본 장에서는 금곡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도사역인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금곡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의 초기 정착 과정과 전도폭발훈련의 내용과 함께 금곡교회가 시행한 전도폭발훈련의 통계를 분석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금곡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생명축제의 역사 및 구체적인 실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새생명축제의 당일집회와 결신과 사후관리까지 살펴보고 통계분석 및 평가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도사역의 활성화가 금곡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논할 것이다.

제 1 절 금곡교회의 전도폭발훈련

금곡교회 복음전파사역에서 새생명축제 전도예배가 하나의 기둥이라면 전도폭발훈련은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밀하고도 접근성이 용이한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금곡교회 전도 사역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서 전도폭발훈련 사역이 시작된 배경과 사역의 실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정착과정

본 연구자는 2011년 금곡교회에 부임하여 교회에 전도폭발훈련을 도입하고자 전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 4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인준하는 사랑의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폭발훈련에 참석시켜 훈련을 받게 한 후, 이것을 교회에 접목함으로 전도폭발훈련이 시작되었다.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은

2012년에 제 1기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2기씩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전도위원장 최용복 장로와 3명을 선발했는데, 최용복 장로외에 3명은 부목사의 추천을 통해 서류전형으로 20여명을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서류전형으로 10명을 뽑고 한명씩 개인면접을 했다. 면접결과로 5명을 남기게 되었다. 최종 5명과 재면접을 했다. 전도폭발훈련의 중요성과 훈련의 강도를 강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게 되어 최종으로 3명을 선발하여 미리 전도폭발훈련 암기전문을 외우게 하고 훈련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게 했다.

2011년 가을학기에 사랑의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을 4명이 받았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에 임하여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사랑의교회 전폭팀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고 그들의 성실성과 훈련평가가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2012년 1기생을 모집하고 또한 사랑의교회 전폭팀의 11명의 훈련자 파송으로 순조롭게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올해 2015년에는 6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금곡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건강한교회로 평판이나 소문이 좋은 교회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했다. 전도폭발훈련은 주님의 성도로의 삶을 보충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무장시켜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금곡교회 전도폭발 훈련내용

그동안 금곡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켜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했다. 전도폭발훈련은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보충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무장시켜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금곡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 학기마다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한다. 전도폭발은 평신도훈련을 실제적으로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평신도훈련을 통해 제자도를 배우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여기에 좀 더 실제적인 전도 훈련이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금곡교회는 현재 장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와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

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다.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은 2012년에 제 1기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2기씩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는 3월 초-6월 초까지, 하반기 9월 초-12월 초까지 나누어있다. 주일저녁에 장년전도폭발훈련을 하고 있으며, 청년부는 토요일 오후에 XEB(청년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부는 어린이 전도폭발훈련을 하고 있다.

타교회 지원자는 담임목사 추천서를 받고, 기수별로 4명 정도를 받아서 훈련을 함께 하도록 진행했다. 두 교회에서 훈련생을 보내서 일 년간을 훈련했지만, 현재는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훈련생 과정과 훈련자 과정의 두 단계로 나뉜다. 훈련자과정은 고급 및 상급 훈련자 과정으로 나뉜다. 1단계는 훈련생 과정이고 2단계는 훈련자 과정이다. 그리고 3단계 이상을 고급 과정이라고 한다. 각 단계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 과정-효과적인 복음제시 훈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둘째, 효과적인 훈련자 과정-1단계 심화훈련으로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켜 영혼을 건지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현장에서의 전도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고급 훈련자 과정-삶의 문제 처리훈련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찾아내는 방법과 이 문제들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법을 배운다.

넷째, 상급 훈련자 과정-반대의견 처리훈련으로 훈련자들이 자기 자신과 훈련생들이 가진 의심,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는 의심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무장시키며 전도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반대의견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다섯째, 5단계-전도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보다 효과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각 단계별 학기 진행과정은 부록에 실려 있다.

매주 일정 분량의 전도폭발훈련의 핵심인 전체 복음제시를 총 10주에 나누어서 일정 분량 암기토록 함으로 효과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1주차에 기초적인 암기 개요만을 알고 입학한 훈련생은 매주 주어진 암기분량에 충실하게 암기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진행한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는 거의 모든

암기를 마친다.

주별 암기 개요는 복음개요, 서론, 결신, 교회간증, 복음: 은혜, 복음: 하나님, 복음: 믿음, 결신, 즉석양육, 전체복음제시로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진다.

전도폭발훈련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내용의 신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을 새롭게 깨닫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별로 정리해 보면 조별모임, 찬양 및 기도회, 과제물점검, 광고, 그룹별 공개보고회, 시범 및 강의, 파송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어 진다.

주 1회 현장 전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총 13주 훈련기간 동안 팀 전도 9회, 개인전도 4회 이상을 해야 수료할 수 있다.

한 팀이 된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두 사람은 함께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제시를 하게 된다. 이 현장실습이야말로 전도폭발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감동적인 부분이다. 수업을 강의로만 배울 수가 없듯이, 전도폭발훈련도 강의로만 배우지 않고 반드시 현장전도실습을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처음에는 훈련자가 전도대상자를 접촉하여 복음 제시하는 동안 훈련생은 보고, 듣고, 깨닫고, 기도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교과 과정이 진행되면서 훈련생은 점진적으로 복음제시 내용을 익히게 되고 복음제시를 부분적으로 참여하다가 실력이 향상되면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훈련생에게 넘겨주게 된다. 훈련자는 점점 복음제시 분량을 줄여 나가고 훈련생은 점점 복음제시 분량을 늘여 나가서 훈련 하반기쯤에는 훈련생 혼자서 복음제시 전체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교실 수업시 진행되는 것으로, 준비된 양식에 따라서 전도결과를 보고한다. 아울러 전도현장에서 겪은 전도 사례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교훈 얻은 것을 보고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개 보고회는 교사들이 진행을 하며 보고회가 여담으로 흐르지 않도록 배려하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전도팀을 격려 하고,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전도팀들과 공유되도록 잘 진행해야 한다. 공개 보고회의 목적은 통계가 아니라 격려와 중보기도 이다.

전도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말하면서 기도를 놓쳐 버릴 수가 없다. 전폭 훈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한다.

훈련생을 입학할 하면서 2명의 기도 후원자를 스스로 모집한다. 그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다음 학기에 훈련생으로 입학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을 기도후원자로 요청한다.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마다 기도후원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전도 시간 등을 알려 주고 그 시간에 기도 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현장을 다녀와서는 다시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도후원자와 경험을 나눈다. 기도후원자는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전폭 훈련에 초대받아 현장을 견학하고 훈련생의 기도 요청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훈련자와 훈련생은 강의가 있기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압기를 점검하고 오늘 이루어질 전도현장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현장 수업 중에 지난 주간의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기도제목을 조원들과 나눈다. 교사는 각조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용지에 정리를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요청한다. 중보 기도실에서는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자들에게 훈련 현장에서 온 긴급한 기도의 요청에 대하여 중보기도로 기원한다.

훈련생은 조별로 기도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구역에서도 그 주간 현장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역장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구역원들의 기도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구역 전체가 항상 구령의 열정에 노출 되도록 돕는다.

전도폭발훈련은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모든 기도하는 조별로 기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3인의 조원들 그리고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중보로 기도지원을 한다. 거기에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다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10여명이 기도 지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에 넘치는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후원이 많다는 것이다.

3.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의 통계분석 및 평가

금곡교회에서 2012년 전도폭발훈련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 변화와 도전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의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 사역을 살펴보면

서 이 훈련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는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한 수료생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생 수

훈련단계	1기(2012)	2기(2012)	3기(2013)	4기(2013)	5기(2014)
1단계	11명	13명	16명	9명	10명
2단계	4명	6명	5명	13	7명
3단계			4명	5명	5명
4단계				4명	4명
5단계					4명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년 훈련받는 훈련생이 있으며 또한 단계별로 훈련을 받고 있기에 그 효과는 매년 시간이 갈 수로 교회내 전도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복음으로 전도하는 확실한 일꾼들이 점점 더 많이 훈련되어 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훈련생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부장하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많은 은혜가 전도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나 앞으로 하나님이 금곡교회에 주실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또한 <표 3>은 전도폭발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이 복음제시하고 결신한 사람의 수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3>금곡교회 전도폭발훈련 복음제시와 결신자 수

	1기	2기	3기	4기	5기
복음제시	107명	67명	101명	104명	105명
결신	89명	30명	71명	75명	53명

<표 3>에서도 나타나듯이, 매년 100명에 가까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신율이

7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복음으로 결신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복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년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하는 숫자가 100명정도 되는 것은 복음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변화되고 훈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눈 간증 사례 두 개를 살펴봄으로 금곡교회의 전도폭발훈련이 끼친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간증 1> 전폭수료간증: 훈련생 000

저는 전폭 기도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번에 걸쳐 기도후원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도폭발훈련에 훈련생으로 지원하라는 권유는 여러 차례 받았지만 30여 년간 매년 성경공부와 교리공부, 전도 등 많은 훈련을 받았었기에 다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압기의 부담도 있는 전폭훈련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님의 간절한 말씀과 훈련생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자리나 함께 하여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강하는 당일 전폭훈련에 지원하여 함께하게 되었다. 그러나 첫 시간에 나누어 주었던 교재와 많은 종류의 자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순간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민 시작한 훈련이니 1단계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무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교재를 보며 공부하고 숙제와 전문 압기에 열심을 다하였다. 교재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기초적인 말씀들이는데도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삶속에서 많은 말씀과 경험과 간증으로 전도하였을 때 가끔 느꼈던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복음제시 전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설득력이 있어 전도를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전문을 하루 속히 외우고 싶어 더욱 시간을 내어 열심히 전문을 암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외었다고 생각하여 현장 실습 시간에 복음제시를 해보려고 하면 대상자를 쳐다 보고 하게 되니 외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훈련자가 옆에서 도와주어 많은 부분들을 마무리하며 현장 실습들을 하나하나 마쳤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아닌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던 이웃 중 한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관계를 갖고 전도를 하던 사람으로 독실하지는 않지만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제시 내용을 끝까지 들어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하여 만나기로 하고 훈련자와 조원과 함께 만나서 시론을 시작하고 복음 전문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들어 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자가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신부분까지 제시하여 결신하게 되었고, 즉석 양육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리라는 희망은 있었지만 결신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꼈고 전폭사역이 오랜 시간 걸리는 관계전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꼭 훈련 받아야 할 과정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내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즐겨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금곡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교회 직분자 모두가 전폭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지역 사회를 온전히 복음화 시켜나가는 금곡교회가 되어 지길 꿈꾸며, 열정을 다해 헌신하신 지도목사님과 전폭 스텝들과 훈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은혜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간증 2> 어린이 전도폭발훈련 간증: 000(초6)

내가 처음 전도폭발에 참가를 하며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전도폭발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놀이터라는 놀이를 하게 되었다 각각 다른 코스가 12개가 있는데 요절을 외우며 수행하라는 미션을 조금씩 통과하면 열쇠를 받는데 코스가 12개인 것처럼 미션을 수행하면 얻는 열쇠도 총 12개 이었다. 나는 6명의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 12개의 미션을 제일 빨리 수행했다. 물론 누가 일등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놀이를 통해 그런지 내가 전도폭발에 참가한 것이 만족스럽고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전도폭

밭에서 외우고 있는 복음이야기가 있는데 복음의 순서는 천국,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심으로 복음을 차례차례 외우고 있다. 외우는 것이 힘들고 치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나의 부모님을 데리와 우리가 열심히 외운 복음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행이도 부모님께서도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과 칭찬과 많은 충고들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물론 잘못 외운 부분이 있어 범칫하고 놀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셔서 뿌듯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요절을 외울 수 있게 노력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한다. 또 우리가 잘못 외울 것 같아서 불평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는 선생님과 강도사님, 부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복음을 외워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진도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어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주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울 수 있게 전도할 것이다. 또 전도폭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될 수 있는 복음을 받게 되어 뿌듯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전도폭발에 참가하여 뜻 깊은 시간이 만들어진 것도 감사하다.

전도폭발은 힘들어도 꼭 한번 해볼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재미있고 좋았다. 또 집에 가져가는 진리로 만드는 재미도 있어 좋았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다.

장년 전도폭발훈련 간증 한 편과 어린이 전도폭발훈련 간증 한 편을 기재했다. 모두 훈련의 어려움과 새로운 것과 암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 후에 변화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승부하는 전도폭발훈련은 교회의 새 시대의 준비라고 생각한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있다. 아직은 금곡교회에서 적은 사람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리라 믿는다.

제 2 절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과 복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역사 및 실제, 당일집회와 사후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생명축제의 통계 분석 및 평가를 할 것이다.

1.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역사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는 역사가 길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곡교회는 68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교회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그렇듯이 금곡교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 않았다. 2012년에 '새생명축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새생명축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개념 자체가 성도들에게 생소했다. 처음에는 새생명축제에 대해서 교역자나 준비위원들에게 먼저 바른 인식을 깨웠다. 그들이 점차 인식을 해가면서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태신자들을 작정하게 되었다. 새생명축제를 매년 계속하면서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도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 이후 매년 새생명축제는 금곡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생명축제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매년 새생명축제를 통해 등록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2.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실제

새생명축제는 태신자 작정으로 시작된다. 태신자란 박연한 전도대상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초대해서 모시고 올 전도 대상자이다. 전도대상자를 이미 전반기 부활절부터 결정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시간과 사랑으로 그를 섬긴다. 전도자는 태신자가 새생명축제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신하고 등록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현신의 수고를 나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총동원주일'과 다르다. 무조건 한 번만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부활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게 한다.

이는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가족 중 태신자를 기도로 품는다. 가족 중 평소에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태신자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9월과 10월은 실제적으로 태신자에게 접촉하는 달이다. 태신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향상시키고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전도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 이때 전도지와 전도용 선물 그리고 교회 소식지 등을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한두 번 찾아가고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생명축제를 앞두고는 문자보내기, 주보전 해주기, 간증 나누기, 교회 소개하기, 선물주기, 식사 초대하기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한다.

태신자 작성 후에 태신자들과 접촉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계란을 준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활주일 계란은 한 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계란바구니를 제작한다. 그리고 수 천 개의 계란을 삶고 계란을 장식한다. 부활주일 계란 나누기는 부활의 기쁨을 태신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된다.

금곡교회는 지금까지 매년 부활주일에 주일학교와 청년 그리고 장년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한다. 그러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나 태신자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부활했는지를 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새생명축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 담임목사에게 있다. 담임목사가 성령을 의지하고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할 때 사단이 넘보지 못한다. 담임목사가 복음에 열정을 가질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전파에 대한 불이 붙는다.

강사선정도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새생명축제의 강사는 담임목사보다 더 좋은 강사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도자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태신자들과 함

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것이다. 새 생명 축제 집회 횟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부 강사초청의 경우 유명세나 목회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강사가 전도 설교에 대한 경험 유무이다. 의외로 일반 설교는 잘하지만 전도 설교에는 익숙하지 못한 강사들이 많다. 그러므로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강사의 설교태이프나 동영상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새생명축제의 성격에 대해 미리 강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 담임목사가 반드시 결신 순서를 받아주는 것이 좋다. 강사의 설교 이후에 결신시간을 담임목사가 가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자들로 하여금 심적 안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새생명축제를 처음 하거나 전도 메시지를 전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연예인을 초대해서 설교를 대신하여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태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익숙한 연예인으로 복음에 접하게 하는 시도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복음은 연예인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담임목사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전도의 기회를 타인에게 미룬다면 언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 설교에 경험이 없고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새생명축제의 본격적인 준비는 새생명축제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새생명축제 두 달 전에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모임이 새생명축제의 실제적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며 전도담당 목사와 전도위원장, 전도부장이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도위원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의 특징은 평신도들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역자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교역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중심축은 평신도들이다. 무엇보다 준비위원회는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게 되는데 준비위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매주 참석한다.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내용들이 논의되며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새생명축제의 전체적인 반향과 진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모임을 둔다. 기획모임은 집회 3개월 이전에 모여야 한다. 기획모임은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한다. 각 분과의 상황과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도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도부장과 총무가 한 조를 이루어 나간다. 이들은 전년도 새생명축제를 참고로 하지만 그 해 그 해 새롭게 기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획모임을 위해 전도담당 목사가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처음 하는 경우에는 교역자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신도들이 주도를 하는 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준비는 새생명축제 당일 예배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당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한다. 예배순서는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고 집회 순서지 제작, 시나리오 작성 및 진행을 담당한다. 예배공간, 영상 및 방송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새생명축제 예배는 불신자들이 처음 와서 갖게 되는 첫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테신자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예배가 너무 경직되거나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모임과 차별화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며 새생명축제의 방해하는 영적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새생명축제는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선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주관한다. 또한 기도는 새생명축제 당일 중보기도를 준비하며 운영한다. 당일 모든 집회 시 중보기도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순서 및 담당자 특히 구원초청 시간을 위해 기도한다. 이들의 방패 기도를 통해 사단의 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홍보는 새생명축제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새생명축제 주제, 목표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알려야한다. 또한 새생명축제의 준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교회 전체에 알리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구체적인 홍보의 사역을 보면 우선 새생명축제의 시작을 교인들에게 알린다. 동시에 현수막, X-배너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한다. 주보를 통해 새생명축제를 알린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동기부여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교회 내 전도를 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무엇보다 복음전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열게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동기부여를 담당한다. 그리고 D-Day 현판을 부착해서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고취시킨다. 이를 통

해 교회와 성도들의 소통을 맡아 원활하며 새생명축제의 종합적인 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전념한다.

또한 태신자 진도에 대한 간증은 성도들의 마음을 전도하도록 도전하는데 아주 좋다. 다음의 진도 간증을 소개한다.

<간증 3> 남편(가정)진도: 000권사

살롬!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일학교 대부분은 그냥 왔다만 가는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저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웠고 이에 많은 상처와 실망으로 신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20대 중반에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35세 정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신앙생활은 청년 때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 소망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저는 양골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골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집을 주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골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셨고 큰 형님이 부당이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곧 영적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 불려 성경책을 감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남편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약 9년 정도 흘렀습니다.

지난 날 교회에서 부부 동반 성지순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 믿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세벽작정기도를 하며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야속하게도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쟁이들과 함께 안 간다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지 않겠다

고 했던 남편이 출발 전날 갑작스럽게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지 순례 여행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구원하시고자 성지 순례 여행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 여행을 통해 회심시키셨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와서 곧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수개월 후에 드디어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깊은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성지 순례란 귀한 도구를 통해 남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예비하신 태신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를 걱정하시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속히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약 90여명의 태신자를 위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저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고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간증 4> 이웃 전도: 000권사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자리를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언변도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런 마음은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되어 돌이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계기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계산하더라도 우리의 진부를 드러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부거운 마음이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영리를 통하여 전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은 제게 무섭고 두려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의 발에도 정성껏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칭찬도 해드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며 높여주면서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듯이, 칭찬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 제 마음이 더욱 기쁘고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 기도를 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자 그분들이 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녔다가 상처받은 영혼, 쉬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과부와 병든 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이 땅을 속히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 간증 두 편을 소개했다. 한 편은 가족전도이며 한 편은 이웃전도를 한 사례이다. 이는 태신자를 걱정하고 또한 전도하는데 많은 도전을 준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이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간증은 나와 같은 사람이 가족 또는 이웃을 전도하는 삶의 이야기이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된다. 그런면에서 간증은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의 장이 된다.

세생명축제 성패의 열쇠는 복음에 있다. 복음을 얼마나 태신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담임목사의 설교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설교를 뽑아서 테이프를 제작하여 이를 지원한다. 전도지는 기존의 전도지와는 차별되어 제작한다. 복음메시지를 간증의 형식으로 풀어쓴 전도지를 활용한다.

새생명축제 당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들에게 공지하는 사항을 집약한 안내서, 패스포트(passport)를 만들어 제공한다. 당일 사용할 참석 카드와 결신카드 제작도 중요하다. 이를 전 주에 나누어 주어 작성해오도록 해야 한다. 당일에 로비와 창구가 혼잡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새생명축제 3주 전부터 구역모임 교제가 특별하게 제작된다. 주로 전도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모임을 위한 교제를 제작한다.

새생명축제는 복음이라는 지상 최대의 선물을 제공한다. 그런데 평신도의 입장에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를 위해 교회차원에서 테신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 금곡교회는 이를 위해 매년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고 있다. 선물은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이 가장 좋다.

동원은 성도들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새생명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생명축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담임목사다. 새생명축제는 담임목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담임목사가 새생명축제에 전념해야 한다. 가장 선두에 서서 성도들에게 새생명축제의 의의와 중요성에 관해 강조해야 한다.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동원이라 말할 수 있다.

새생명축제의 목표인원은 가시적인 목표다. 엄밀히 말해 목표인원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도 매년 바뀔 수 있다. 지난 수 년간의 통계분석 결과 새생명축제는 테신자 참석인원의 50퍼센트 정도가 결신을 한다. 그리고 결신자의 대부분은 등록을 한다. 그러므로 동원은 성도들로 하여금 당일 테신자를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동원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동기부여이다. 평소 전도를 꾸준히 한 경우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평소에 전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경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막상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임목사의 강단메시지가 중요하다. 성도들로 전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담임목사의 강단 메시지이다. 또한 평신도 전도자의 간증 또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이 경우 교회 간증자는 교회에서 평소에 전도에 열심을 내고 열매가 많은 성도들을 추천받아 간증하게 한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 및 노

하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신도 간의 구체적인 간증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사모함을 심어준다.

새생명축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구역과 전도회이다. 새생명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역과 전도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구역이 매주 모여서 구역장을 중심으로 전도를 독려하고 전도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구역이다. 지금까지 새생명축제를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구역장이 전도에 힘을 쏟으면 구역원들도 열정적으로 동참한다는 사실이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세삼 깨닫게 된다. 구역장과 구역원이 태신자를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그런 산고를 통해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다.

등록은 새생명축제 당일과 사후에 할 일이다. 우선 당일 태신자들이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당일에 한꺼번에 많은 태신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혼잡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등록 담당자들이 일시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오는 태신자 카드 접수를 친절하게 받아야 한다. 그들의 태도가 교회의 첫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생명축제 당일에 주제제기 및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는 복음의 집축점으로 큰 효과를 거둔다.

후속양육은 집회 후 결신자에게 교회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교회에 등록된 태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착을 돕는 구역을 배정한다. 또한 남녀 전도회와 새가족모임으로 인도한다.

3.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당일집회와 결신

새생명축제 집회는 무엇보다 '영혼의 잔치'이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천국에 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집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VIP는 태신자다. 그러므로 모든 집회는 불신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배의 순서 진행 그리고 분위기까지 보통 집회와는 다르다.

보통 주일 예배는 묵도, 찬송, 기도, 찬양, 말씀, 광고, 찬양,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 당일의 예배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게 된

다. 설교를 하고 주제제기 영상을 상영한다. 이후에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에 서로 교제하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된다. 보통 예배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이다. 예배를 전통스타일과 다르게 드리는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입장에서 편안하고 인상이 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새생명축제 당일 예배 스타일은 경건, 단순함 그리고 축제의 세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우선 금목교회는 새생명축제가 주일 오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세상과는 다른 뭔가를 기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태신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역시 예배이다. 그런데 간혹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예배가 쇼의 형식이나 경박함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기존성도는 괜찮지만 오히려 태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고 구별됨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루하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지만 경건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단순해야 한다. 예배가 너무 복잡하면 태신자들이 혼동한다. 머리가 복잡하다. 가뜰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요소가 필요하다. 예배가 경건하고 한편으로 축제의 기쁨이 살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새생명축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안내위원들이 따뜻하게 태신자들을 영접해야 한다. 태신자에게 인사를 나눌 때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태신자들을 너무 인식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최고의 손님'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 실에서도 공손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 이때 밝고 친절한 안내는 필수다. 참석카드와 결신카드를 인도자가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먼저 만나서 태신자와 차를 나누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날은 서로 바쁘기 때문에 각자의 태신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태신자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찬양을 하고 성경을 찾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태신자에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자가 태신자 옆 자리에 앉아 가능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

도록 배려해야 한다.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와 같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태신자라 할지라도 찬송가 한두 곡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배 시간 전에 조용하게 찬양을 들려주는 것은 태신자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집회가 시작되면 찬양을 하는데 이때 찬양은 처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고 단순한 곡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찬양자가 나와서 찬양을 한다. 이때 찬양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의외로 찬양 시간이 좋았다고 하는 태신자들이 있다. 그들의 빈 마음과 상한 마음을 녹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찬양은 훌륭한 도구가 된다.

세생명축제 예배 중에 간증을 한다. 간증은 교회 내의 간증자는 체험은 약하지만 진솔하고 안정적이다. 신선한 면도 있다. 반면 외부 간증자는 극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명도가 있는 간증자의 경우에는 태신자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다.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간증자와 청중들의 공감대이다. 간증은 태신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평신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시간은 함께 듣고 감정이입의 경험을 하게 된다. 복음에 대한 편견이나 이질감이 해소되며 모종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다음은 복음의 확신을 경험한 성도의 간증을 사례로 나누고자 한다.

<간증 5> 전도 대상자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간증: 000성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의 믿음으로 교회에 정착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끔씩 저에게 맞을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김권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권사님은 저에게 예수님은 믿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저는 암으로 힘들었던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한 번 저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시며, 예수님께 다 맡기는 신앙생

활을 해야 한다며 금곡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며 꼭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권면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에 제 맘이 열리고, 금곡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5월 초 주일날 권사님과 1부 예배 약속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고 큰 은혜와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배 주일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7월 초 즈음에 유방암이 재발되었고 입과선으로 전이되었다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금곡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부척이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과 교구목사님, 그리고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구역 식구들과 권사님 온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회복 중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해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심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의 아픔을 통하여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금곡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더 나아가 저를 통해 친구를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아멘

새생명축제에 준비된 구원간증을 한다. 등록한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의 구원간증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나 또는 오래 동안 쉬었다가 오신 분들에게 친근감 있는 은혜로 또한 동감이 되는 이야기로 들려지기에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평범한 자연인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지를 개인의 삶의 이야기로 따뜻하게 들려 줄 수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새생명축제 집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결정적인 시간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설교자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설교자는 무엇보다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교해야 한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지나치게 신학적이고 어려운 설교를 하면 불신자들이 듣지 않게 된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비록 태신자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듣는다.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변화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직면하게 만든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만든다. 이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들은 말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결신의 시간이다. 새생명축제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바로 결신초청의 시간이다. 이는 전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전도한 태신자가 과연 복음을 영접할 것인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줄이게 된다. 이때 전도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신자의 감정변화나 태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사단은 이때를 이용해서 태신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놓는다. 결신초청은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이주로 결신을 촉구해야 한다. 결단의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조급하게 하지 말라. 경건하고 진지하게 이 시간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결신을 구걸하는 것도 좋지 않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결단 후에는 결신한 태신자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4. 금곡교회 새생명축제의 사후관리

새생명축제가 '충동원주일'과 다른 것은 사후관리가 잘된다는 것이다. 밀물처럼 한번 오고 썰물처럼 가는 것이 아니다. 새생명축제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더욱 바빠진다. 왜냐하면 등록된 태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생명축제 이후 등록된 태신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갈 4:19).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아미요. 어미의 모습이다. 새생명축제 이후 금곡교회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한다.

가급적 빠른 시간, 적어도 다음 날부터 교역자들이 결신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또한 같은 주간에 교구별로 전화 봉사자를 두어 앞으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연결하도록 한다. 결신자들을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결신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는 감사편지를 보낸다. 교회등록은 새생명축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된다. 교회의 관심과 지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다. 등록하면 환영을 하고 바로 세가족부와 담당 교역자가 심방을 해야 한다. 결신자의 교회정착을 위해서는 교역자와의 연결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와 같다. 태신자를 소그룹에 연결하는 것은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구역에서 지체의식을 함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가족부에서는 등록된 태신자를 구역에 연결시킨다. 혹은 전도자의 구역에 편성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전도자는 태신자가 구역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태신자가 등록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정착의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된 태신자로 세가족모임에 참석하게 해야 한다. 복음으로 막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금곡교회는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5주 세가족모임을 이수하게 한다. 이 모임을 통해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5. 금곡교회의 새생명축제의 통계분석 및 평가

금곡교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생명축제를 해오는 동안 나타난 수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계분석을 통해 전도의 원리, 방법 그리고 향후 전도전략에 필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사역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새생명축제의 태신자작정과 초청 그리고 결신자의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금곡교회 새

생명축제의 통계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4> 금곡교회 세생명축제 통계

	2012년	2013년 전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태신자작정	1,191명	981명	951명	973명
초청자	77명	57명	37명	54명
결신자	43명	24명	19명	22명

<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년 1,000명 정도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기에 이 점은 금곡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도전과 열망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전도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초청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결신도 적은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첫째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 동안 교회에서 전도하면 총동원주일처럼 동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은 하지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관계형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

두 번째는 관계전도가 익숙하지 않다.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관계전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은 하지만, 태신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그러나 세 번째는 태신자 작정을 매년 하고 있고 또한 릴레이기도와 평신도훈련 그리고 전도복발훈련 등으로 성도들의 신앙수준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에 세생명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도 복음 안에서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에 하나님은 금곡교회 세생명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시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부르시리라 생각한다.

제 3 절 전도사역의 활성화가 금곡교회의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도사역인 새생명축제와 전도폭발훈련이 금곡교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 다음 세 가지, 교회의 이미지 변화와 교회의 양적 질적인 성장,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망과 도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교회의 이미지의 변화

무엇보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금곡교회의 전도사역인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는 이제 교회 사역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과 10월에는 온 교회는 '새생명축제'에 집중한다. 모든 성도, 부서 그리고 교회 전체가 '새생명축제'에 집중한다. 그 결과, 새생명축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또한 매주 전도폭발훈련은 전도의 현장에 있도록 권면하며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한 기도와 열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전도의 열풍은 교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명이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조직체와는 다르다.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생명의 관계가 된다. 또한 각자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생명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지상교회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그들은 가는 곳 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다.

새생명축제는 교회에 생명력을 불려 일으킨다. 새생명축제 기간 동안 온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생명력의 역사를 눈으로 복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행 2:47).

전도폭발훈련은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들기에 교회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게 된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교회 중심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교회의 이미지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교회의 양적 질적인 성장

최근 한국교회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유는 교회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다시 듣게 함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한다. 주님을 향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을 회복하게 한다. 생명력이 회복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 서로 섬기고 사랑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전도를 해본 성도는 전도에 열심을 낸다. 왜냐하면 전도가 주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통해 성도들이 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훈련을 통해 실천해보니 되더라는 것이다.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 이후 금곡교회는 교회 내에 불평거리가 많이 사라졌다. 서로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발만 많이 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중직자들이 전도를 통해 겸손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된 것이다.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교회의 건강은 말씀만 많이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도 영양분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영양을 공급받기만 하면 비만이 된다. 교회도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일이 없는 교회의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다준다.

금곡교회는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를 통해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도를 단지 교회성장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사역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전도가 필수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자각하기 시작한다.

3. 전도에 대한 열망과 도전

전도폭발훈련과 새생명축제의 장점은 전도를 교회의 사역으로 감당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아니다. 전 성도가 일 년 동안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연말에 산고를 통해 세 생명을 낳는 일이다. 이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진력하는 사역이다. 영혼의 추수이다. 무엇보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늘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를 염두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실천하게 된다. 교회 안에는 의외로 전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여성도들이 많다. 이른바 ‘짝 가정’이 꽤 많이 있다. 또한 옆집에 살면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는 불신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큰 부담 없이 교회에 오고 참석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사실 주일 설교에서 복음의 진수가 묻어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대부분 기존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에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원색적인 복음메시지이다. 죄, 죽음, 속죄, 십자가, 구원 등의 주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며 이 복음을 듣는 성도와 대신자 모두 새롭게 된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를 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평신도 훈련생들이 가장 전도에 열심이며 실제로 전도를 잘 한다는 사실이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 이후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평신도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평신도훈련을 통해 증인으로서 변화가 된 것이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훈련과 맥을 같이 한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전도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전도인력을 집중하고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최대의 전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금곡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진력해왔다. 전도폭발훈련과 세생명축제가 절대적인 전도법은 아니다. 전도법은 다양하다.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해서 금곡교회의 전도전략의 향후 과제가 있다. 본 연구자는 그것을 ‘침침의 전도’라고 하고 싶다.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기독교에로의 개종이 왜 종종 실패하는가?”에 대해 “세 신자들이 그들의 사회와 불신의 친절들로부터 쫓겨나 분리

되어 고립되므로 그들과 아무런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¹⁰²⁾ 섬김의 전도는 필요 중심적 전도의 한 형태이다. ‘섬김 전도’란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네티 빈야드 공동체 교회가 대표적으로 해오고 있다. ‘섬김 전도’를 처음 시작한 스티븐 쇼그렌(Steve Sjogren)은 목회를 하면서 평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다른 사람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을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법이 무엇인가?”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섬김 전도’를 시작했다. 그는 ‘섬기는’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보통’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한다. 쇼그렌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착안했다. ‘섬김 전도’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었다. 공짜로 새차를 해주는 일이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자동차 유리를 닦아 주는 섬김이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마침내 청량 음료를 나눠 주는 것 까지 하게 되었다. 한 팀은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다.¹⁰³⁾ 그 후 이 교회는 ‘섬김 전도’로 전도된 사람이 전체 새신자의 80-90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7000명으로 성장했다.¹⁰⁴⁾

‘섬김 전도’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진로나 직업,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불신자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전도전략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전도가 적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구체적 실현이 된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결국 회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곡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섬김 전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102)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이서사, 1974), 45.

103) Steve Sjogren, *101 전도법*, 장세학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13-19.

104) Steve Sjogren, *자연적 전도*, 임원주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9-39.

제 6 장

결 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 이해를 먼저 정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수순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성장과 쇠퇴하는 교회의 성장변화 속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본다.

그 신학적 토대위에서 전도의 실천적 이해를 찾아야 한다. 먼저, 대상과 전도 방법 등에서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도전과 열정이 요청되는 시대이다. 교회에서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본질에 충실한 장기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개교회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은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전도의 실질적인 열매는 적다. 그러므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축제 또는 대각성집회, 전도폭발훈련, 사랑방축제 등은 전통적 교회에서 총동원주일로 실시하던 전도행사에 관계전도를 중심으로 한 보완된 전도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전도 프로그램은 목회자의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에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전도 프로그램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교회이든지 복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며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설교는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며 인간의 유희를 자극하는 다양한 노력보다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도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섬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전도를 해

야 한다. 그들을 감동케 하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어느 시대든지 그 역사는 언제나 강력하다. 그것을 믿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자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다. 제자로 부름 받은 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분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셨고, 지주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는 모든 권리와 자기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날개 치러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자신이 이루셨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기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데려가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이다.

우리는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첫 출발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는 ‘증인’이라는 말과 통한다.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에수를 전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전도하라”는 사도들의 명령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장면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은 누구나 사도들과 다름없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는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내적 충동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의 사람에

게 있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일종의 본능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은 명령을 앞지르기 마련이다.

성령이 주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박해가 닥쳐와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 사도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굳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성령의 내적 충동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굳이 또 “전도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소개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고 한 사실에 주목하라.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증인 될 것이라는 말이다.

증인이 누구인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생생히 체험하는 사람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심령이 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다. 성령의 내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주시는 선물이다(고전 12:11).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놓고 우리는 은사라고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 사건 속에 은사의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당시의 성령 임재는 은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전도가 은사라면 전도하지 못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성령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은사 받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용물로 전락하게 되어 성령이 교회에 오신 목적과 그가 결정한 교회의 사도적인 본질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직책을 주셨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화복하게 하시는 말씀, 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이다.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순종에 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증인의 삶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영혼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다.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한 번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우시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 안타깝고 다급한 그 심정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금곡교회 전도사역인 세생명축제와 전도폭발훈련을 통해서 먼저 특정한 개인을 두고 전도하려고 힘쓰기에 박연한 무리를 삼기보다 구체적인 개인을 태신자, 곧 전도 대상으로 정하고 시간과 공을 들인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사역의 목표를 결신에만 두지 않고 더 멀리 보면서 결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데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 교인숫자 보다 제자도를 깨우치는 일에 관심이 갖고 태신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엔 전도하려고 힘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잃어버린 영혼들 즉 ‘예수님의 사랑의 일 순위’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무관하며, 무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도의 동기가 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

의 동기가 될 때 반(反) 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어떠한 실패나 반대를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주를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길자연. *왕성교회 태신자 전도운동*. 서울: 도서출판왕성.
- 김두식. “한국교회,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서울: 도서출판 프리젱트, 2006.
- 김선일. “복음의 진정성이 불신자 전도의 열쇠” *목회와신학* 2015년 1월호.
- _____. “생명체 원리로 풀어낸 전도운동, 태신자전도”, *목회와신학* 2009년 8월호.
- _____.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_____. “하나님 나라와 선교: 요나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적 성품” 그말씀, 2013년 6월호.
- _____.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새세대, 2012.
- _____. *두란노아카데미 전도편*. 서울: 두란노, 2011.
- 김태형. “가족,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김형진.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3.
- 나겸일.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충동원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샘물사, 1992.
- 문상희. “예수의 생애와 선교”, *오늘의 성서연구와 복음선포 제7집*, 연세대학교 유니온학술자료원, 1987.
- 문인현. “복음전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강일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 민남기. *한국식 전도*.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7.
-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박해경. *되는 전도 하는전도*. 안양: 도서출판 잠언, 1995.
- 신성중.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신학지남*, 1980년 가을·겨울호.
- 안산동산교회전도팀. “기독교신앙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 2008년 9월호.
- _____. “불교나 유교 등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 _____. “이전에 교회를 나섰으나 현재 낙심한 사람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 안점식. “타 종교인,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안환근. “무신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양낙홍.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신학교육의 개혁*.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1998.
- 여운학. *제 3기 이슬비전도학교 강의안*. 서울: 규장문화사, 1992.
- 오창도. “소그룹사역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전도, 수영로교회 ‘사랑방 전도축제’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 왕성교회. *태신자전도운동 공개세미나 교안*. 1999년.
- 우창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복음전도*. 서울: 도서출판 자은, 2007.
-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복회전략, 신일교회 세생명 축제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 이규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전망사, 1990.
- 이상규. *사영리의 적용과 실제,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두란노, 1992.
- 이상만. *오이코스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이상화. “교회를 떠난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이왕복. *생활전도*.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1.
- 이종성. *칼빈*. 서울: 기독교서회, 1998.
- 임현준. “불교신자전도, 아는만큼 전도할 수 있다”,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진호진. “이단의 특성과 이단전도전략”, 고려신학논문집 제18호, 1990년 12월호.
- 정은숙. “가족전도, 사랑으로 인내하라” 교회성장 통권 제183호, 2008년 9월호.
- 조은테. *전도학총론*, 서울: 다문화권 목회 연구원, 1995.

- 조종남. *선교와 사회참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조춘용, 이도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 최동규. “한국교회의 토종 전도법, 태신자 전도” *목회와신학*, 2009년 8월호.
- 최석범. “전도폭발의 적용과 실제,” 두란노 편, *전도방법론* 철지분석, 서울: 두란노, 1993.
- 탁지일. “이단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호.
- 태신자전도클리닉. “생명의 사역, 태신자 전도,” *목회와신학*, 2009년 8월호.
- 하도균.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목회와신학* 2012년 11월.
- 한국대학생선교회 편. *4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순출판사, 1999.

2. 번역서적

- Baum, Gregory. *종교와 소외*. 이원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김철순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3.
- Clowney, Edmond. *당신의 교회생활은*. 서원교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 Conn, Harvie M.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Drummond, Lewis A. *현대전도학* 서설. 변은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Green, Michael.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Johnson, Ben. *복음전도입문*. 전용제 역. 서울: 종로서적, 1986.
- Kennedy, James. *전도폭발*.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Kuiper, R. B. *교회란 무엇인가*. 박수준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3.
- _____. *전도신학*.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 Ladd, G. E.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McGaveran, Donald A. *교회 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이스사, 1974.
- Sjogren, Steve. *101 전도법*. 장세학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_____. *자연적 전도*. 임원주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tott, John R. W.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예수문서선교회, 1981.
- Sweazey, George E. *교회전도학*. 천병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Tippet, A. R.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장중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80.

Watson, David.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_____.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3. 외국서적

Autrey, C .E.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69.

Bassham, Rodger C.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1980.

Hesselgrave, David J. ed. *Theology an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McElveen, Floyd C. *The Compelling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891.

Packer, James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5.

Stott, John R. W. "The biblical Basic of Evangelism,"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Vita of
Myon So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eumGok Presbyterian Church, Namyangju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9, 1965
 Marital Status: Married to JungAe No in April 15, 1995
 with three children, HaYong, JuChan,
 SungEun
 Home Address: 399-19 Geumgok-dong, Namyangju-si,
 Gyunggi-do, Korea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0, 2000

Education

B. A.: Konkuk University, Seoul, 1992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eumgok Presbyterian Church
 2005 to 2011: Assistant Pastor
 of Sarang Community Church
 2002 to 2004: Senior Pastor
 of Yaungmuri Presbyterian Church
 2001 to 2002: Assistant Pastor of
 Wangsung Presbyterian Church